

석사학위논문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시경』
「관저」의 인간 행복 연구

A Study on the Human Happiness of 「GuanJu」 in 『ShiJing』
based on Confucius' Science of Feelings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전공

유 지 진

2022

공자의 감정과학에 기초한 『시경』
「관저」의 인간 행복 연구

A Study on the Human Happiness of 「GuanJu」 in
『ShiJing』 based on Confucius' Science of Feelings

지도교수 성 동 권

이 논문을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0월

국 민 대 학 교 일 반 대 학 원
문화교차학협동과정 문화예술전공

유 지 진

2022

유지진의

문화학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23년 1월

심사위원장 안 현 상 ①

심사위원 유 영 관 ①

심사위원 성 동 권 ①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차 례

국문 요약	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1. 연구 배경	1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3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7
1. 연구 방법	7
2. 연구 범위	11
제2장 감정과학	13
제1절 감정과학에 대한 정의	13
1. 감정	13
2. 과학	16
3. 감정과학	17
제2절 감정과학으로서 공자의 학	19
1. 위기지학	19
2. 하학상달	26
3. 지천명	32
제3장 공자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관저」 분석	38
제1절 감정과학의 「관저」 번역	38
1. 원문에 대한 번역 및 주석	38
2. 「관저」의 감정과학	44
제2절 「관저」의 애이불상	48
1. 이미 완전	48
2. 슬픔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	51
제3절 「관저」의 낙이불음	53
1. 내 안의 부부	53
2. 기쁨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	55
제4장 현대 행복론에 대한 비판적 탐구	58
제1절 러셀의 ‘행복론’	58
1. 러셀의 생애와 『행복의 정복』	58
2. 러셀의 행복론에 대한 비판	59

제2절 보들레르의 ‘악의 꽃’	68
1. 보들레르의 생애와 『악의 꽃』	68
2. 보들레르의 행복론에 대한 비판	69
제5장 결론	79
참고 문헌	82
Abstract	84

국문 요약

행복의 추구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욕망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추구할 것인가, 행복의 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할 것인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등등의 질문에 결국 마땅한 답이 하나도 없다. 이 논문은 공자의 연구방법인 사여학(思與學)과 감정과학의 연구방법으로, 시경 관저의 재해석을 통해 공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행복의 진실을 이해하고, 마지막으로 행복론에 대한 비판 공자에 대한 평가 “락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에서 깨달은 행복의 진실을 다시 한 번 공고히 한다.

“락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본 논문은 감정과학을 통해 공자의 사상을 새롭게 정리하고,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바탕이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공자의 학문에서 찾고자 한다. 이어서 이 정리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중심으로 공자의 행복론을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했다.

감정과학에 대한 합리적 인식에 근거하여 우리는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의 사상임을 입증하였다. 그래서 공부한 공자의 관저를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면 행복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본래부터 행복 속에서 탄생한 행복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은 영원불변의 진리이며, 이후 본 논문은 이 진리를 통해 “락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감정의 진실로 배우게 한다.

『시경』의 「관저」의 재해석에 앞서 감정과학에 대한 매우 세밀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감정과학을 정의하면서 감정과학의 논리에서 출발하여 공자의 학문론이 감정과학이었음을 증명하였다. 공자의 학문이 우리 자신의 몸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마지막으로 몸에 내재된 본성의 필연성을 배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증하였다. 감정과학의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공자의 감정과학의 논리에 기초하여 『시경』의 「관저」를 번역 주석하고 상세한 분석을 하여 감정과학으로 이 작품을 증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락이불음, 애이불상(樂而不淫, 哀而不傷)”의 뜻을 세밀하게 밝힌다.

이후 현대 학문이 이해하는 행복을 탐구했다. 서양 근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러셀의 행복론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했다. 서양 대표 시인 보들레르의 시 『악의 꽃』의 「여행」과 함께 그들의 행복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행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힌다. 공자의 감정과학에 따르면 자신의 몸이 천명(天命)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한다. 우리는 본래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서 이미 완전히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러셀과 보들레르가

주는 행복은 밖에서 일시적인 쾌락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결코 행복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관저」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은 우리가 밖에서 행복을 추구한다면 절대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슬픔을 느끼든 기쁨을 느끼든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할 수 있고, 배움을 통해 감정의 진실뿐만 아니라 몸을 느끼는 진실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몸은 진실을 이해하고, 자신의 몸 속에 본래 존재하는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락이불음(樂而不淫)”이다. 행복의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기쁨을 느낀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형성될 때 그 이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한한 감정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주제어: 관저, 몸, 감정, 논어, 행복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문제 제기

1. 연구 배경

국민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내 인생은 재미가 없었다. 매일 살이 몇 근씩 찌는 고민을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걱정했다. 이러한 나의 삶에서 나는 국민대학교 문화교차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학과에서 공자의 『논어(論語)』를 공부하면서 행복에 대한 근본 이해를 확립할 수 있었고, 그 결과 나는 지난 20년 동안 형성된 나의 생각을 고치게 되었다. 생각은 한 사람의 행동을 주도한다. 좋은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향하게 한다.

중국에서 『논어』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필수 과목이다. 어렸을 때 우리는 『논어』의 중요한 단락을 숙지했기 때문에 논문지도교수가 우리에게 『논어』를 배우자고 할 때 나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러나 교수와 토론하면서 중국에서 내가 생각하고 배운 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생각에 입각하여 『논어』를 이해할 수 있었다.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에 근거한 『논어』 이해가 그것이다. 『논어』의 공자는 내 삶에서 ‘의무’(義務)를 강요하는 윤리학자가 아니었다. 공자는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감정’의 진실을 가르쳐주는 정감 있는 따뜻한 선생님이었다.

공자의 학문이 몸의 진실을 인식함으로써 감정의 진실을 인식하는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은 문화교차학의 『논어』 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성동권은 『유교 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감정 그 자체의 본성으로 이해하는 학문입니다. 감정의 겉모습 같은 현상이나 감정에서 비롯된 어떤 행동 및 그 결과에 의존하여 감정을 해석하는 ‘감정 해석’이 아닙니다.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한 한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감정을 느낄 때 그 각각의 감정에 나아가 그 감정이 자기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

연성을 이해하고, 그 결과 감정의 순선무악(純善無惡)을 확인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입니다.¹⁾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한 결과 나는 내 몸과 감정의 진실에 대해서 참답게 이해할 수 있었다. 공자의 감정과학은 지금 내 몸이 있는 그대로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선(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나는 ‘나의 몸’을 믿고 사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몸으로 느끼는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감정과학은 지금 내 감정이 있는 그대로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선(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친구’와 사이 좋게 지내고 싶은 내 감정은 불안한 것이 아니라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것임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상,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함으로써 나 스스로 자명하게 깨달은 것이다.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할 수 있고, 몸으로 살아가며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깨달음 안에서 『논어』를 계속해서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깨달음으로 느낀 나의 기쁨을 공자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확인과 함께 내가 주목하게 된 것은 공자의 ‘관저’(關雎)이다. 공자는 ‘관저’를 논하면서 학문의 기쁨을 ‘낙이불음’(樂而不淫)과 ‘애이불상’(哀而不傷)으로 요약했다.

‘낙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은 『시경(詩經)』의 첫 편인 「관저(關雎)」에 대한 공자의 평가이다. 일반적으로 이 작품은 고대 중국의 주(周)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 즐겨 부르던 노래로서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추구하고 동경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공자의 평가는 이러한 지배적인 이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락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넘어서 인간의 행복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며, 그 핵심은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행복은 본래 있는 것이어서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겪게 되는 불행들은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며, 따라서 감정을 느끼며 배우는 나의 행복에 그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자연 안에서 오직 인간만이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요약한다.

이 주제를 공부하기 전에 행복에 대한 나의 이해는 나의 노력을 통해서 밖에서 구하는 것이었다.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간주된 행복에 대한 나의 이해에 대해서

1)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1.

공자가 들려주는 행복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다. 지금 나에게 행복이 없다면, 지금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 경우 행복을 구하는 나는 이미 불행이라서 공자의 ‘락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과 완전히 반대된다.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한에서 나는 이미 불행한 ‘불락’(不樂)이며 슬픔의 비극 속에 있는 ‘애상’(哀傷)이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추구한다. 우리 가운데 행복을 부정하며 불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공자의 ‘락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에 의하면 우리의 행복 추구는 뜻밖에도 ‘불음’(不淫)이며 ‘불상’(不傷)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을 추구한다면 공자가 제시하는 행복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본 논문은 공자의 「관저(關雎)」를 다시 읽고 그에 근거하여 ‘락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대 중국의 춘추시대(春秋時代) 사상가 공자의 사상을 감정과학으로 정리하겠다. 몸에 대한 타당한 이해로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학문론이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철학이다. 다음으로 이 정리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본격적으로 공자의 행복론을 『시경』 「관저(關雎)」에 대한 공자의 시론(詩論)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이후, 최종적으로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탐구하겠다.

2. 선행 연구 검토 및 문제 제기

1) 선행 연구 검토

(1) ‘낙이불음, 애이불상’과 공자 ‘중화(中和)’ 미학정신

조옥민(趙玉敏)은 소논문 「‘락이불음, 애이불상’과 공자 ‘중화’(中和) 미학정신」에서 공자의 사상과 미학 정신을 결합하여 ‘락이불음(樂而不淫), 애이불상(哀而不傷)’을 분석하였다. 저자는 주로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공자의 ‘중화’미학 원칙의 규칙(規則)을 뜻하는 것으로서 전례용(典禮用) 음악(音樂)을 중화표준으로 대표하고 있다고 이해한다.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공자가 관저를 겨냥하여 말한 것이다. 춘추 시대의 봉건 예교(禮敎)의 규칙과 제도가 극도로 파괴된 현실과 공자의 ‘극기복례(克己復禮)’를

중심으로 한 문화 사상은 공자로 하여금 ‘중화(中和)’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였다.²⁾

조옥민은 공자의 ‘낙이불음 애이불상’을 춘추 시대 봉건 질서에 국한하여 이해한다. 더 나아가 공자가 「관저(關雎)」를 통해서 봉건 질서의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주 나라의 봉건 질서를 다시 확립함으로써 ‘중화’(中和)를 다시 이루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조옥민은 공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을 주 나라 봉건 질서의 음악에 국한한다.

그러나 공자의 관저에 대한 조옥민의 분석은 논의의 기초가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공자의 학문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공자의 학문은 앞으로 밝혀지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고대 주(周) 나라의 봉건질서로의 회귀 이전에 몸 그 자체의 진실에 대한 인식이다. 이 인식으로 느끼는 행복 감정을 공자는 관저에서 찾았고, 그 결과 관저의 핵심을 ‘낙이불음 애이불상’으로 정리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자(孔子)가 처한 시대적 상황에 구애받을 필요 없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감정과학의 기초 위에서 공자의 ‘낙이불음 애이불상’을 이해할 수 있다. 공자의 학문 정신에 충실하면, 공자의 관저를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방법은 내 몸과 감정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는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몸의 진실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내 몸의 필연성을 자명하게 깨달을 때 감정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2) 「관저」 ‘락이불음, 애이불상’

유역안(柳亦安)은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인간의 행복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감정의 ‘절제’와 ‘억제’에 주안점을 두고 탐구하고 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서 감정 그대로를 흥기시키기 보다는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거나 ‘억제’하는데에 관저의 목적이 있다고 주장한다.

군자의 정신적인 특성은 연정이라 할지라도 온화하고 우아하며, 순서에 따라 점진적이며, 상당히 절제되어 있다. 쾌락은 지나쳐서는 안 되고, 애상도 지나쳐서는 안 된다. 설령 구하려고 해도 ‘전전반측’(輾轉反側)이 아니며, 마지막에 연정이 마침내 인정되는 것은 ‘종고락지’(鐘鼓樂之)일 뿐이다. 공자의 감정을 절제하는 서정(抒情) 이론은 걱정을 방지하는 이론보다 더 생명력이 있고 역사의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

2) 趙玉敏(조옥민), “‘樂而不淫, 哀而不傷’與孔子‘中和’美學精神(‘락이불음, 애이불상’과 공자 ‘중화(中和)’ 미학정신),” 『北方論叢(THE NORTHERN FORUM)』 (哈爾濱師範大學(하얼빈사범대학), 2012), p. 20.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樂而不淫, 哀而不傷’, 是孔子針對《關雎》而發。春秋時代禮崩樂壞的現實與孔子‘克己復禮’的文化理想, 使孔子對 “中和”的闡發, ‘更爲緊密地圍繞着禮樂問題而展開’。”

것이다. 3)

유역안의 논문에 의하면, 공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감정을 절제하는 이론이다. 그는 감정을 지나치거나(過) 지나치지 않거나(不及) 등과 같은 ‘정도’(程度)의 문제로 보고 있다. 이 주장을 통해서 공자 역시 감정을 정도(程度)의 문제로 이해했다고 주장한다. 공자는 관저에 근거하여 슬픔과 쾌락의 감정을 느낌에 있어서 지나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감정의 절제를 잘 하는 사람은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공자의 ‘낙이불음’과 ‘애이불상’을 감정의 절제로 접근하는 조옥민의 분석은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공자의 학문과 완전히 다르다. 감정과학으로 보면 공자의 관저는 감정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감정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밝혀준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내 몸 안에 진실을 자명하게 이해하도록 일깨워준다. 이 사실이 분명할 때 ‘나’의 세상 역시 ‘다 좋은 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감정에 나아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이해할 때 비로소 ‘락이불음, 애이불상’의 진실이 환하게 드러난다. 행복은 이미 본래 행복이며, 그렇기 때문에 슬픔 등과 같은 감정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본래부터 행복 속에 있다. 행복에 대해서 참답게 아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참답게 아는 사람이다. 이에 근거하면 영원한 행복을 얻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몸이 느끼는 감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에 있다. 행복은 본래부터 자기 몸 안에 항상 있다. 그러므로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인생의 행복이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한다.

(3) 「관저」가 가르치는 애정관 약술

전유풍(田瑜風)은 공자의 관저가 남녀의 애정관을 품고 있다고 정리했다. 관저를 공자의 평가로 바라보면, 우리는 올바른 애정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인류의 인도를 두드러지게 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하고 구할 수 있는 사랑은 반드시 명확한 결혼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와 반대로 젊

3) 柳亦安(유역안), “《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관저」 ‘락이불음, 애이불상’),” 『貴陽文史(구이양 문사)』 제5기(貴州省文史學會(귀주성문사학회), 2012), p. 6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君子的精神特点, 哪怕是戀情, 也是溫文而雅的, 循序漸進, 頗有節制, 快樂不能過度, 哀傷也不能過度, 即便求之不得也不過就是“輾轉反側”, 最后, 戀情終於得到認可, 也不過就是“鐘鼓樂之”而已。孔夫子節制感情的抒情理論, 可能要比放任激情的理論更有生命力, 更經得起歷史的考驗。”

은 남녀의 짧은 만남이나 일시적인 걱정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사랑은 자연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것이다. 사랑은 시작과 동시에 반드시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해야 한다. 책임을 지려면 심리적 성숙, 사회적 조건의 성숙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⁴⁾

그러나 우리는 다음의 두 가지 주제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올바른 애정관’을 확립하는 것과 ‘사랑 그 자체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엄격히 말해서 서로 다르다. 왜냐하면 남녀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행복을 느끼기 이전에 사랑 그 자체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랑의 사실대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애정관이 바로 서게 된다. 이는 논리의 필연성을 생각해 보면 자명한 것이다. 공자의 관저에 대한 전유풍의 분석이 과연 사랑 그 자체의 진실을 향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다.

우리는 ‘락이불음, 애이불상’이 아주 좋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그 이치를 알고 있는가? 사랑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사랑을 느끼는 우리 감정의 진실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명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본 논문이 취하는 감정과학의 연구방법으로서 ‘생각(思)과 배움(學)’에 근거하여 몸과 감정의 진실을 확인하고 그에 근거하여 관저에 대한 공자의 분석을 깊게 연구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앞에서 약속한 선행연구검토를 기초로 본 논문이 제기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정리하겠다. 그 다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방법을 요약하겠다. 끝으로 본 논문의 연구 방법으로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범위를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2) 문제 제기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검토에 근거하여 공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에 대한 해석을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공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을 주 나라 봉건 질서의 음악에 국한

4) 田瑜風(전유풍), “淺述《關雎》教學中的愛情觀引導(<관저>에서 가르친 애정관의 인도를 약술한다),” 『“파영” 국어교육과 연구(頤英|語文教學與研究)』 (中國學術期刊電子出版社(중국 학술지 전자 출판사), 2021), p. 15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突出“樂而不淫，哀而不傷”的人倫引導。正確的可謳歌的愛情是應該有明確的婚姻目的的，不是青年男女短暫的邂逅，一時的激情。愛情不僅是自然的，更是社會的，愛在開始的同時必須伴有相應的社會責任。而承擔責任是需要具備心理成熟，社會條件成熟等一定條件的。”

② 공 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감정을 절제하는 이론

③ 올바른 애정관과 사랑

그러나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위의 해석들은 대체로 근본적인 통찰을 결여하고 있다.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 그것이다. 그 결과 해석들은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흐르거나 핵심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이유로 본 논문은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추구하는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관저」에 대한 공자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한다.

이 연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① 자기 몸 안에 본래부터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

② 자기 몸의 필연적 본성으로부터 감정 그 자체 진실을 자명하게 이해

③ 몸으로 생겨나 몸이 느끼는 감정으로 놀이하는 세상의 다 좋음을 이해한다.

우리의 행복한 삶을 위해 세 가지 연구의 중요성에 입각하여 공자의 관저를 감정과학으로 배우고 이해하면 행복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모두는 본래의 행복 속에서 생겨나 행복으로 놀이한다는 사실이 영원불변의 진리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감정의 진실을 ‘락이불음, 애이불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다. 그러므로 ‘락이불음, 애이불상’을 먼저 감정과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락이불음, 애이불상’에 존재하는 깊은 본뜻을 발견하고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정리하겠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연구 범위

1. 연구 방법

본 논문의 주제는 관저에 대한 공자의 분석으로서 ‘락이불음, 애이불상’에 대한 연구이다. 이 목적에 충실하여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공자가 『논어』에서 제시한 학문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을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이것은 생각해 보

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자 스스로 학문방법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사실로부터 공자의 시론(詩論)에 해당하는 관저의 평가는 당연히 공자의 학문방법에 근거하여 이해되어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공자의 관저를 분석하기 때문에 공자의 ‘사여학’과 함께 감정과학에 고유한 연구방법을 논문의 연구방법으로 채택한다. 이 두 가지 방법을 함께 두고 생각해 보면,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기본적으로 공자의 ‘사여학’을 연구방법으로 하되 그에 더하여 감정과학을 연구방법으로 병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본 논문이 채택하고 있는 두 개의 연구방법은 엄밀히 말해서 본질적으로 하나이다. 공자의 연구방법인 ‘사여학’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 및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구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자의 ‘사여학’을 기초로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논문의 주제를 탐구하겠다. ‘락이불음, 애이불상’은 우리 자신의 자명한 ‘생각’(思)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과 감정을 ‘배움’(學) 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공자가 제시한 생각과 배움의 핵심을 우리 자신의 ‘몸’에 두는 것이 감정과학이다.

1) 『논어』의 학문 방법: 사여학(思與學)

「관저」에 대한 공자의 ‘락이불음, 애이불상’을 감정의 진실로 이해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를 탐구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 이해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사유(思)와 배움(學)이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배워보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 우리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때, 그에 근거하여 공자의 ‘락이불음’과 ‘애이불상’을 이해할 수 있다.

공자는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학문방법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요약한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배운다며 생각하지[사랑하지] 않으면 답답하고[남는 게 없고], 생각한다며[사랑한다며]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⁵⁾

자 완 학 이 불 사 즉 망 사 이 불 학 즉 태
子曰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⁶⁾

5)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73.

공자에 의하면 학문의 방법은 사유(思)와 배움(學)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유와 배움은 무엇에 대한 것일까? 공자는 『논어』에서 일관되게 학문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예날의 학자는 자기를 공부했는데, 오늘 날의 학자는 남을 공부한다.”⁷⁾

子曰 古之學者 爲己 今之學者 爲人.⁸⁾

공자에 의하면 배움은 자기가 자기를 배우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공자가 학문의 방법으로 제시한 사유(思)와 배움(學)은 당연히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생각(思)이자 배움(學)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자기 몸에 대한 생각 안에서 자기 몸에 대한 배움을 추구한다. 내 몸을 배울 때는 내 몸에 대해서 ‘나’ 자신이 생각해야 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기 몸에 진실을 자명하게 깨달 수 있다.

이 깨달음을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도록 태어났으니까 ‘사랑하지 않는다(不思)’는 말은 자기를 잘못 알고 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불사(不思)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다만 잘못된 말일 뿐이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하는 공부는 지겹기만 하다. 사랑 때문에 공부하는데 사랑을 빼고 한다니까 그렇다.

반면에 ‘사랑은 무슨 얻어 죽을 놈의 사랑이야’라고 말하는 사람[无知者莫知者, 무턱대고 ‘알어,알어’하며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말도 잘 들어보면 사랑한다는 말인데 그 사람이 하는 사람이 사이불학(思而不學)이다. 그런 사랑은 위험하다. 사랑받을 사람에게 다한 공부는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묻지마 사랑’이 돼서 오히려 사람을 괴롭히고, 평지풍파만 일어난다.⁹⁾

조중빈에 의하면, 사유하고 배운다는 ‘사여학’(思與學)은 공허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에 나아가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고 그 관념 안에서 감정의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라는 감정의 관념을 사유가 형성할 때, ‘미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유로 ‘화’를 느낄 수밖에 없는지 필연적인 이유를 묻

6) 『論語』, 「爲政」 15장.

7)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24.

8) 『論語』, 「憲問」 25장.

9)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73.

고 생각하며 배우는 것이다. 즉, 감정의 겉모습 같은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사여학(思與學)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공자가 학문방법으로 제시한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이해해보고, 그에 기초하여 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겠다. 이 이해는 궁극적으로 공자의 「관저」를 이해하는 기초가 된다. 공자가 학문을 통해서 깨달은 학문의 기쁨을 요약하는 것이 관저에 대한 공자의 시론(詩論)임을 정리하고자 한다.

2) 감정과학의 논리

감정과학은 공간과 시간의 형식을 통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드러나는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그 결과 그 모든 무한한 감정이 영원성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과 최고의 선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성동권은 감정과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과학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감정에 나아가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것으로 감정의 순수지선을 배우는 학문입니다.¹⁰⁾

감정 그 자체의 필연성 안에서 감정의 순수지선을 이해하면 우리는 감정의 현상으로 감정의 좋음과 나쁨을 판단하는 오류로부터 자유롭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감정을 느끼는 우리 스스로 감정을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사유(思)이며, 마음 스스로 자기 감정에 나아가 그 자체의 본성을 배우는 것이다. 이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성동권이 제시하는 감정과학의 정의에서 보면, 감정과학을 탐구하는 방법은 그 기초가 사유가 자기 안에서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재귀적 사유로서 ‘자기이해(reflexive understanding)’이다. 이 지점에서 공자의 학문방법으로서 ‘사여학’의 사(思)는 근본적으로 감정과학의 연구방법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자의 학문방법으로서 사유(思)는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생각하는 것이므로 이 사실에 근거하여 공자의 사유는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생각 안에서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사유의 능동성이기 때문이다.

10) 성동권, 『감정과학의 논리 생각하며 배우기 1.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부크크, 2021), p. 10.

유영관은 ‘재귀적 사유’의 능동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재귀적인 사유: 재(再)는 생각이 자기 안에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이 돌아봄이 재(再)의 뜻이다.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두고 그 안에서 ‘다시(再)’ 생각해보면 나 그 자체를 안다는 사실이다. 생각은 재(再)라는 것이기 때문에 횡수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내 안에서 자명하게 알 수 있다.¹¹⁾

감정과학의 연구방법이 근본적으로 공자의 ‘사여학’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다시 강조하지만,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사(思)는 마음이 ‘재귀적(再歸的, reflexiva)’ 사유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 자신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이다. 몸에 대한 생각은 실질적으로 몸을 떠나지 않은 마음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생각이 마음의 사(思)이다. 학(學)은 마음의 사유가 자신의 자명 안에서 명석판명하게 인식하는 자기 몸에 대한 사실을 배우는 것이다. 즉, 몸에 대한 배움과 생각이다.

그러므로 상술한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공자의 ‘사여학’은 실질적으로 감정과학의 논리이다. 몸 그 자체에 고유한 존재의 필연성을 생각하고 배움으로써 그에 기초하여 감정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다. 감정과학은 몸에 대한 이해로 감정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공자의 학문 방법인 ‘사여학’에 근거한 공자의 ‘관저’에 대한 연구가 사실상 감정과학에 의한 공자의 ‘관저’ 연구와 일치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2. 연구 범위

본 논문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공자의 「관저」(關雎)를 이해하는 것이다. 공자는 「관저」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그 뜻을 ‘낙이불음’(樂而不淫)과 ‘애이불상’(哀而不傷)으로 요약하였다. 낙(樂)과 애(哀)는 감정이다. 이 감정에 대한 이해가 불음(不淫)과 불상(不傷)이라면, 이것 자체가 이미 감정에 대한 이해를 품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논점이 있다. 하나는 무슨 이유로 「관저」를 애이불상과 낙이불음으로 평가하는지 밝혀야 한다. 다른 하나는 감정에 대한 공자의 이해를 밝혀야 한다.

이 두 주제를 다루기 위한 방법이 감정과학이다. 이 방법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2장’에서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으로 증명했다. ‘3장’은 2장

11) 유영관,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박사 학위 논문(2019), p. 20.

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시경』의 「관저」를 번역하고 공자의 시론(詩論)으로서 낙이불음과 애이불상의 뜻을 탐구했다. ‘4장’은 감정과학에 근거한 행복론에 입각하여 현대 행복론이 과연 행복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품고 있는지 분석했다. 이상, 연구 범위를 본 논문이 다루는 핵심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요약했으므로 이하에서는 간략하게 각 장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정리하겠다.

2장 ‘공자의 감정과학’은 ‘감정과학’이라는 용어에 대한 논자의 정의를 정리했다. ‘감정’, ‘과학’, 그리고 ‘감정과학’이 그것이다. 감정과학을 각각의 핵심 개념어로 나누어 정의한 다음, 그에 대한 전체적이 정의를 했을 때, 본 논문은 그에 입각하여 공자의 학문론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했다. 공자의 학문이 우리 자신의 ‘몸’을 배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끝으로 이 사실은 몸이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배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장 ‘공자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관저」 분석’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관저」를 번역했고, 이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주석을 최대한 자세하게 달았다. 그 결과 이 작품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이에 기초하여 본격적으로 낙이불음과 애이불상의 뜻을 밝혔다. 참고로 논의 순서는 애이불상을 먼저 다루고, 다음에 낙이불상을 논하였다. 그 이유는 시의 흐름이 애이불상으로부터 낙이불음으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4장 ‘현대 행복론에 대한 비판적 탐구’는 3장에서 확인한 공자의 행복론에 근거하여 현대 행복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다. 하나는 근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영국의 철학자 러셀이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자의 감정과학으로 살펴보았다. 다른 하나는 근현대 시(詩)를 대표하는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의 시를 분석함으로써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러한 두 가지 방면의 접근은 철학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고 그에 근거하여 『시경』의 「관저」에서 행복을 이해하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 및 주제에 충실한 것이다.

끝으로 5장 ‘결론’은 본 논문의 핵심 주제를 다시 요약하고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인지 정리했다.

제2장 감정과학

제1절 감정과학에 대한 정의

1. 감정

우리는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하며 살아가는 존재이다. 이 자명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몸이 느끼는 감정을 잠시라도 떠날 수 없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감정 안에 존재하며, 사실상 지금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지금 우리 자신의 존재이다. 이 방식 이외 다른 방법으로 지금 우리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본적으로 배워서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감정 느끼며 감정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정의하는 한에서 당연히 우리 자신의 몸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다.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으로 감정을 느끼며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간다.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감정을 느끼면 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감정대로 한 행동에 대해서 뜻밖에도 후회를 하거나 비난하기도 한다. 이때 문제의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인은 ‘감정’에 있는 것일까? 아니면, 감정을 느낀 우리 자신이 감정의 진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에 있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우리의 답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우리는 감정 안에 있으며 감정을 절대적으로 떠날 수 없다. 이 사실로부터 문제의 원인을 감정에 두는 것은 실질적으로 몸으로 생겨나 놀이하는 우리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각을 감정을 부정하거나 문제시하기 보다는 오히려 감정에 대한 우리 마음의 오해가 감정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후회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이 이 지점에 이르면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감정의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배워서 이해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감정을 배우고 이해해서 감정의 진실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 행복의 방법을 감정과학은 다음과 같이 감정에 대한 정

의를 분명히 함으로써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제시한다.

감정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는 ‘성발위정’(性發爲情)이다. 이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은 다음과 같다.

성(性)은 당연히 지금까지 우리의 논의에 근거하여 ‘몸’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제의 ‘성’(性)은 퇴계에게 ‘합리기’(合理氣)의 성(性) 또는 ‘성상근’(性相近)의 성(性)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性: 몸)이 발(發)하여 드러난(爲) 것이 정(情)입니다. 이것이 감정에 대한 퇴계의 이해입니다. 몸으로 생겨난 ‘나’ 자신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감정’이라고 정의합니다. 감정과학은 이 이유로 몸에 대한 이해를 생김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몸-생김의 필연성’이라 정의하며,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는 ‘몸-놀이’를 감정으로 정의합니다.¹²⁾

감정과학에 의하면, 감정은 ‘몸-놀이’이다. “몸으로 생겨난 ‘나’ 자신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몸으로 생겨난 ‘나’ 자신이 몸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이다. 그런데 ‘몸-놀이’는 자기 존재에 관하여 ‘몸-생김’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생겨난 몸으로 놀이하며 몸이 느끼는 것을 감정으로 정의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영원불변이다.

우리 몸은 생겨난 몸이다. 이 몸을 ‘몸-생김’이라고 한다. 그리고 ‘몸-생김’의 몸으로 자신만의 놀이를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한하게 한다. 이것을 ‘몸-놀이’라고 하다. 이것을 감정과학은 ‘감정’으로 정의한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감정을 정의하는 퇴계의 성발위정(性發爲情)은 생겨난 나의 몸이 자기 몸으로 놀이하는 중에 자기 스스로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감정에 대한 퇴계의 정의는 17세기 서양 근대 철학자 스피노자(Spinoza, 1632~1677)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감정을 정의한다.

나는 정서를 신체의 활동 능력을 증대시키거나 감소시키고,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 이해한다.¹³⁾

퇴계의 ‘성발위정’(性發爲情)을 스피노자는 ‘신체의 변용’으로 보다 더 구체적이며 자세하게 설명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감정은 ‘신체의 변용’, 즉 신체의 사건이다. 절대적으로 마음의 사건이 아니다. 몸이 자기 스스로 변용하며 감정으로 드러나면 마음은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할 뿐이다. 감정은 신체의 변용 및 그와 동시에 변용에 대한 정신이 자기 스스로 형성하는 관념(idea)이다. 따라서 ‘감정’은 인간의 정신

1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25.

13)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3부 정의3」 (서광사, 2007), p. 153.

이 ‘몸’과 몸이 느끼는 ‘감정’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마음은 자기 몸이 느끼는 감정을 떠나서 그 어떤 생각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퇴계와 스피노자에 의해서 밝혀진 바와 같이 생각하는 마음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관념을 형성하는데, 이때의 관념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변용’에 대한 마음의 관념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생각을 함으로써 어떤 관념을 형성한다면, 그것의 기원 내지는 유래는 반드시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관념이다. 몸이 변용하여 감정으로 드러날 때, 마음은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며, 이 관념은 마음이 하는 생각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마음의 생각과 배움은 절대적으로 몸이 느끼는 감정을 떠날 수 없다는 결론은 어길 수 없는 필연이다. 이 필연 안에서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감정 그 자체의 본성에 이르도록 하는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이 인식만이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일 뿐만 아니라 마음이 자기에 대해서 타당하게 인식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에 대한 배움으로서 감정과학을 연마해야 하는 근본 이유이다. 따라서 공자가 제시한 학문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은 우리의 마음이 몸이 느끼는 감정 안에서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감정과학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마음이 자기 몸의 변용인 감정에 대한 관념을 ‘자기이해’로 형성하는 한에서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은 사실상 본래 ‘하나’입니다. 감정은 “신체의 변용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기 때문에 “신체의 변용”으로서 마음이 느끼는 ‘감정’과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으로서 감정을 느끼는 ‘마음’은 사실상 같은 것입니다. ‘감정’은 서로 다른 몸과 마음이 사실은 본래부터 ‘나’ ‘하나’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 결론으로부터 감정과학을 감정의 ‘자기이해’(reflexive understanding)로 정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¹⁴⁾

감정은 신체의 변용이기 때문에 신체의 변용으로서 감정에 앞선 것이 감정이다. 이렇게 몸과 감정 사이에 놓인 존재의 필연적 순서에서 보면,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당연히 감정에 앞선 신체로서 우리의 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먼저 분명히 하는 것이다. 마음이 자기 신체(몸)의 본성을 이해하면, 마음은 당연히 ‘신체의 변용’으로서 감정에 대해서 감각적 현상이 아닌 그에 고유한 본성으로 이해한다.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몸의 변용으로서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당연히 감정의 감각적 현상이 아니라 감정이 본래부터 자기 안에 품고 있는 본성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

1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227.

이다. 즉, 이 이해는 감정이 자기 존재에 관하여 자기 아닌 다른 어떤 외부 원인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 감정에 결정된 존재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감정에 대한 타당한 인식은 감정이 오직 자기 본성만을 따라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 즉 감정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을 품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감정을 겉모습 같은 ‘현상’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감정 그 자체의 본성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감정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감정 및 세상 모든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한에서 이 이해는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오직 이 이유로 감정은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이 결론이 매우 중요하다.

2. 과학

몸 그 자체의 영원한 진실은 ‘엄마아빠’의 몸으로부터 태어난 자식의 몸이다. 이러한 인과의 필연성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몸-생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명한 사실이다. 감정과학의 학문방법은 사여학(思與學)인데 마음의 생각(思)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생각 안에서 자명하게 엄마아빠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이처럼 생각하는 마음(思)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인과의 필연성이 ‘과학’(Science)이다.

공자의 연구방법인 사여학(思與學)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배운다고 할 때, 이 배움은 생각하는 마음의 사유(思)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이 자기 사유 안에서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은 엄마아빠로부터 자기 몸의 필연성이다. 이 필연성이 과학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몸에 나아가 생각한다고 할 때, 이때의 생각은 자기에게 존재의 필연적 본성으로서 엄마아빠가 있다는 사실 안에서 자기 몸의 생김을 이해한다. 엄마아빠의 존재는 우리 몸에 고유한 존재의 필연성이고, 이것은 사실상 존재에 고유한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이다. 부모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식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동권은 인과의 필연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우리 모두가 인과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자기의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자기 몸의 존재를 정립하는 ‘단 하나’의 ‘원인’(原因)으로서 ‘엄마 한 분’ 그리고 ‘아빠 한 분’의 존재를 ‘자기이해’로 자명하게 형성합니다. 이 이해는 지극히 ‘주관적인 개별’이지만, 이 원인을 부정하고 존재하는 몸은 없기 때문에 지극히

‘객관적 보편’입니다.¹⁵⁾

마음은 본래부터 인과의 필연성 안에 존재하는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을 자기 생각 안에서 자명하게 이해한다. 마음은 자기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며, 이러한 자기이해 안에서 다시 자기이해의 자명함으로 자기 몸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을 ‘엄마아빠-나’라는 명석판명의 관념으로 형성한다.

그러므로 이 사실에 따르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는 사실 및 이 사실 안에서 자명하게 이해하는 몸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은 명백하다. 더 나아가 마음이 본래부터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자기이해를 형성하는 관념이 본래부터 마음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 또한 필연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모든 몸을 인과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면, 몸에 관한 영원한 진실은 자기 존재에 관한 한 본성의 필연성을 따른다는 사실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결정된 존재의 진리이다. 따라서 공자의 사여학 그리고 그에 기초한 감정과학은 진리의 필연성을 향한 명백한 인식으로서 ‘과학’이다.

3. 감정과학

감정과학은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감정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본성을 이해함으로써 모든 감정을 최고의 완전성과 최고의 선함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의 감정은 절대적으로 선하다는 사실을 자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감정은 ‘신체(몸)의 변용(변화)’이기 때문에 인식의 논리적 순서에 의하면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감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인식의 순서를 감정과학은 학문의 ‘공리’(公理)로 설정한다. 왜냐하면 ‘생김의 몸으로 놀이한다.’는 것은 몸으로 존재하는 우리의 영원한 필연성이므로 몸 그 자체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한에서 이 공리의 필연성은 감정으로서 몸-놀이에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공리(公理)에 근거하여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은 영원의 결정으로 몸-놀이의 감정에 그대로 존재한다. 몸-생김의 필연성

1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17.

으로 몸-놀이의 필연성을 이해하면, 그로부터 감정 그 자체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감정과학의 ‘공리’(公理) 및 그에 기초하여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추구하는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시경』 「관저(關雎)」에 대한 공자의 시론(詩論)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관저(關雎)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몸이 느끼는 감정을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낙이불음’(樂而不淫)의 ‘낙’(樂)은 당연히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이라는 감정이며, 한편 ‘애이불상’(哀而不傷)의 ‘애’(哀) 역시 우리가 생김의 ‘몸’으로 놀이하는 중에 느끼는 ‘슬픔’이라는 감정이다.

공자는 『시경』의 「관저」를 시학(詩學)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이 핵심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핵심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 1) 사랑은 몸-생김과 몸-놀이를 관통한다.
- 2) 생김과 놀이를 관통하는 사랑은 ‘단 하나’의 영원불변이다.
- 3) ‘저구’의 몸은 이 진실 안에서 생겨나고 이 진실만으로 놀이한다.

위 세 가지 논점을 분석하면, ‘저구’(雎鳩)는 감정과학이 증명하는 몸 그 자체의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나고 놀이합니다. 감정과학의 진리를 자연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 ‘저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구’를 통해서 사랑의 진실을 깨닫는 한에서 ‘저구’의 사랑은 동시에 우리의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학에 기초하여 ‘저구’에 대한 자연과학적 탐구에 성공하면,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이 이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사랑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다.¹⁶⁾

위의 인용에 근거하면 공자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관저(關雎)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이해하는 데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자의 평가는 감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관저에 대한 공자의 시론(詩論)을 이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이러한 시도가 추구하는 것은 궁극에 이르러서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관저를 감정과학으로 본격적으로 이해하기에 앞서서 『논어』를 통해서 공자의 사상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공자의 학문이 감정과학이라는 사실이 분명할 때,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락이불음, 애이불상)를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감정과학으로 『시경』의 관저를 이해하고 그에

16)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35.

대한 공자의 이해를 분석하고 이 둘의 일치점을 확인하는 것이 감정의 진실 및 행복의 진실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겠다.

제2절 감정과학으로서 공자의 학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은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몸의 진실을 확인함으로써 몸이 느끼는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몸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마음은 자기 사유의 자명함으로 그에 대한 관념을 형성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한에서 이 진실은 당연히 마음이 형성하는 감정에 그대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과학은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고, 감정 안에서 감정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학문이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학문의 진실을 『논어』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이 발견에 성공한다면, 공자의 학문은 감정과학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겠다.

1. 위기지학

공자의 학(學)은 사유가 형성하는 명석판명의 관념을 통해 ‘내 몸’의 진실로서 몸에 고유한 영원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學)이 추구하는 명백한 이해가 ‘필연성’에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이것을 ‘신’(神)으로 정의한다. 왜냐하면 신은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히 기술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은 ‘영원불변’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학의 본질을 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결국 학문은 내 몸 존재의 필연성으로서 ‘신’(神)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은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로 존재하는 ‘신’(神)을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와 같이 학문의 본질을 정의하면, 우리가 이제부터 알고 싶은 것은 과연 공자의 학(學)이 내 몸을 배우되 내 몸-생김 그 자체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신’(神) 또는 실질적으로 같은 말로서 ‘천’(天)을 이해하는지 여부이다. 즉, 공자의 학이 내 몸의 진실을 향한 배움으로 우리는 인도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

식으로 『논어』를 읽어 보면 우리는 학문에 대한 공자의 정의를 찾아볼 수 있다. 공자(孔子, B.C 551~B.C 479)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예날의 학자는 자기를 공부했는데, 오늘 날의 학자는 남을 공부한다.”¹⁷⁾

자^자왈^왈 고^고지^지학^학자^자 위^위기^기 금^금지^지학^학자^자 위^위인^인
子曰 古之學者爲己 今之學者爲人.¹⁸⁾

공자에 의하면 학문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여기에서 ‘기’(己)는 우리 자신의 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은 결국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몸’에 대해서 배워서 이해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해를 남송 시대 성리학자 정이(程頤, 1033 ~ 1107)에게서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정^정이^이 고^고지^지학^학자^자 위^위기^기 기^기종^종지^지우^우성^성물^물 금^금지^지학^학자^자 위^위인^인 기^기종^종지^지우^우상^상기^기
程頤: 古之學者爲己 其終至于成物 今之學者爲人 其終至于喪己.¹⁹⁾

정이가 말씀하셨습니다.

본래부터(옛날부터: 古) 공부라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배우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은 자기 아닌 다른 것을 배우는데 급급함으로써 끝내 자기를 바르게 배워서 이해하는 것을 상실하는 데에 이르렀다.²⁰⁾

정이의 생각도 본 논문이 이해하는 학문론과 근본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동권도 위기(爲己)의 기(己)가 자기 몸이라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학문의 핵심은 ‘자기’가 ‘자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자기만의 몸을 받아서 자기만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위한다.’(爲)는 것은 그 실상이 학문이기 때문에, “爲己(위기)”는 자기가 자기 몸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爲己(위기)”의 학문은 그 방법이 ‘사여학’(思與學)입니다. 따라서 “爲己(위기)”의 학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으로 자기 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²¹⁾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자기 몸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다. 세상 모든 몸을 이해하기 이전에 무엇보다도 지금 자기의 몸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17)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24.

18) 『論語』, 「憲問」 25장.

19) 『二程集』, 「遺書」.

20) 『二程集』, 「遺書」.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21)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64.

매우 중요하다. 이 이해로부터 세상 모든 몸을 자기 몸과 같은 논리로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방법이다. 반면 이와 같은 학문의 진실을 망각하면, 그 결과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비극이 된다. 이것은 사실 생각만 해보면 지극히 당연하다. 자기 몸의 본성을 참답게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모든 몸을 그 자체의 본성에 근거하여 참답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이 『논어』의 위기지학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동흥걸(董興杰)의 박학(博學)

동흥걸(董興杰)은 위기지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유가의 위기지학은 수신지학(修身之學)이고 천인에서 서인에 이르기까지 모두 수신을 근본으로 하고 자성(自省)도 수신의 근본이기 때문에 자성은 유가의 위기지학의 불이법문(不二法門)이라고 할 수 있다.²²⁾

위기지학은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생각하고(思) 배우는(學)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은 ‘자기 몸’(身)이다. ‘나’ 스스로 나 자신의 ‘몸’을 참답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흥걸의 ‘자성’(自省)은 감정과학의 연구방법인 사여학(思與學)과 유사해 보인다. 동흥걸은 자성(自省)이 수신(修身)의 근본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은 과연 동흥걸의 자성(自省)이 감정과학의 사여학(思與學)과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자기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 그리고 그 자체의 속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는지 여부이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할 때 ‘나’의 존재는 ‘엄마아빠’로부터 필연적이며, 이 필연성의 속성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품고 있는 최고의 완전성이기 때문이다. 엄마아빠의 존재는 내 몸의 존재에 관한 한 단 하나의 필연성이므로 그 자체의 속성이 최고의 완전성이다. 이 ‘엄마아빠’는 내 몸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내 몸의 고유한 사실에 근거하여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자연의 천지만물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명백히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천지만물도 자기 몸으로

22) 董興杰 (동흥걸), “爲己之學的不二法門(위기지학의 불이법문),” 『하북대학 학보(河北大學學報)』 제1기(河北大學(하북대학), 2020), p. 53.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儒家爲己之學是修身之學, 自天人以至庶人, 皆以修身爲本, 自省又是修身之本, 故自省可謂是儒家爲己之學的不二法門。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 그대로 천지만물의 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고부동의 믿음은 진리의 필연성을 향한 우리 인식의 이성적 필연성에서 기하학적으로 연역되기 때문에 믿고 배울 수 있다. 이상의 정리에 근거하여 동홍걸이 이해하는 자성(自省)이 무엇인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²³⁾

- (1) 求諸‘己’
- (2) 吾日三省‘吾身’
- (3) 博學

동홍걸이 자성(自省)으로 제시하는 것은 감정과학과 일치하는 것처럼 유사해 보인다. 구제기(求諸己)의 ‘己’는 ‘오신(吾身)’이기 때문에 감정과학이 향하는 자기 몸 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일치하는 것 같다. 그러나 동홍걸은 求諸己의 오신(吾身)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감정과학에 의하면 ‘求諸己’의 ‘吾身’은 내 몸 그 자체의 본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동홍걸은 뜻밖에 박학(博學)을 언급한다. 내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설명하지 않는다.

동홍걸은 박학(博學)의 결과 자연 속 천지만물(天地萬物)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한다고 한다.²⁴⁾ 이 결론은 당연히 감정과학의 결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론에 이르는 방법 및 과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동홍걸은 결여하고 있다.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명백히 이해할 때, 이 이해에 근거하여 자연 속 천지만물(天地萬物)을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동홍걸이 박학(博學)으로 추구하는 결론과 일치한다. 그러나 동홍걸은 감정과학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방법에 관하여 몸 그 자체의 진실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가 공자의 위기지학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할 때 그 기초는 몸 그 자체의 필연성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 인식이 분명할 때 비로소 나 자신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의 본성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자(論者)가 생각했을 때, 수신(修身)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이 분명하지만, 동홍걸이 제시한 박학(博學)은 위기지학으로서 수신(修身)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박학은 정이가 말한 바와 같이 위기지학에 근거하여 배움의 진실이 무한히 증진하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정이의 말을 다시 보자.

23) 동홍걸, 위의 논문, p. 54.

24) 동홍걸, 위의 논문, 견선평이자존자. p. 54.

위기(爲己)는 수신이며, “其終至于成物”은 박학(博學)이다. 수신은 반드시 박학으로 나아가지만, 박학이 곧 수신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자성(自省)은 내 몸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해서 제대로 배움으로서 마음의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이해가 분명한 것이다. 그 결과 몸의 본성을 필연성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다. 이 진실이 수신이다 그 결과 수신은 자연스럽게 박학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배움은 철두철미 사여학(思與學)에 기초한다. 내 몸에 대한 생각이 내 몸에 대한 배움으로 나아가며, 그 결과가 박학이다.

2) 도가국(涂可國)의 위기위인(爲己爲人)

도가국(涂可國)은 위기지학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전체 유학 체계를 보면 유학은 단순히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아니라 위기지학과 위인지학(爲人之學)의 통일이다. 역대 유가들은 위기(爲己)와 위인(爲人)은 이중적인 차원을 천명했다. 일부 사람들은 유학을 완전히 “위기지학”에 귀결시켰고 이에 따라 유학을 부정하는 것도 “위인지학”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위기”와 “위인”개념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전면적인 파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학은 “위기”와 “위인”을 강조하는 것을 소홀히 했다.²⁶⁾

그에 의하면, “유학은 단순히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아니라 위기지학과 위인지학(爲人之學)의 통일”이다.

그러나 논자는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은 통일의 대상이 아니라 논리적 선후(先後)에 있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선후가 아니라 논리적 선후이다. 왜냐하면 먼저 자신을 위해 배워야만 다른 몸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논어는 우리에게 자신의 몸을 인식하고 자신의 몸을 배우는 것을 가르친다. 이것은 위기지학의 학문이다. 우리는 자

25) 『二程集』, 「遺書」.

26) 涂可國 (도가국), “儒學：爲己之學與爲人之學的辯證統一(유학: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변증법적 통일),” 『東岳論叢(東岳論叢)』 제8기(山東社會科學院(산둥사회과학원), 2018), p. 5.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站在整個儒學系統來看，儒學不單純是爲己之學，而是爲己之學與爲人之學的統一。歷代儒家闡發了爲己與爲人的雙重維度，一些人之所以把儒學完全歸結于“爲己之學”，并据此否定儒學也是“爲人之學”，根本原因在於他們對“爲己”和“爲人”概念缺乏正確解讀和全面把握，忽視了儒學既強調“爲己”又強調“爲人”。

신의 신체 자체의 진실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타인의 신체의 본성을 이해하고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위인지학이다.

내 몸은 엄마아빠로부터 생겨나 부모의 사랑에서 태어났다. 우리의 본성은 내 몸을 낳아주신 엄마아빠이다. 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을 두고 생각해보면, 자명하게 이해하는 진리의 필연성이다. 부모가 없으면 우리가 없기 때문이다. 엄마아빠의 몸도 그들의 엄마아빠에서 나온다. 이렇게 인과필연적인 순서에 따라 우리 몸의 본성을 이해하면, 지금 내 몸의 존재는 영원무한의 단 하나의 필연성을 증명한다. 이것을 본 논문은 천명(天命)으로 이해한다. 천명이 영원무한한 필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의 본성은 엄마아빠의 영원한 사랑이고 원래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위기지학은 당연히 우리 몸에 존재하고 존재하는 영원한 무한한 사랑을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다. 내 몸의 본성은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이 진실 안에서 내 몸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의 모든 몸을 생각하고 배운다. 그 결과 그 모든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한다. 그 결과 이 세상 모든 몸을 생명과 사랑 안에서 배운다. 이것이 바로 위기지학이자 위인지학이다.

3) 진호(陳浩)의 관학(官學)

진호(陳浩)는 위기지학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순희 6년(1179) 주희(朱熹)는 백록동 서원을 복원하고 학규(學規)를 직접 제정하여 자신의 학문의 모든 의미를 서원에 부여하는 교육 목표를 세웠다. 주희는 관학이 과거를 완전히 둘러싸고 교육을 전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잊게 하여 인재가 쇠퇴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서원을 건립하는 행위는 본래 이러한 나쁜 풍조를 반전시키는(바로잡는)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²⁷⁾

관학(官學)은 ‘과거’(科擧)를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이 경우 엄격히 말해서 잘못된 것은 과거가 아니라 관학이다. 관학은 자기를 위한 학문의 근본에 위배된다. 관학(官學)의 독서와 학습은 이익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외부의 명리를 추구하기 위해 책을 읽는다면 우리는 공부를 통해 내 몸

27) 陳浩(진호), “朱熹與‘爲己之學’的書院傳統(주희와 ‘위기지학’의 서원 전통),” 『역사 문화(歷史文化)』(中國學術期刊電子出版社(중국 학술지 전자 출판사), 2022), p. 25.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淳熙六年(1179)朱熹修夏白鹿洞書院,親自制定《白鹿洞書院揭示》,將爲己之學的全部內涵賦予書院的教育目標。朱熹表明官學完全圍繞科擧展開教育,使人見利忘義,以致人才凋敝,別建書院之舉,本身便蘊含着扭轉此種不良學風的用意。

자체의 진실을 깨닫지 못한다. 내 몸을 배우면 원래부터 우리 몸에는 영원한 생명과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감정과학은 과학적인 방식으로 문제와 학문을 분석하는데 특히 위기지학은 사유와 배움을 통해 자신의 본성이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학문은 사람이 이익을 보고 의리를 잇는 것이고 학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며 자신의 본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학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우리 몸에서 출발하여 자신의 고유한 필연적인 본성에서 학문의 진실을 이해해야 한다. 사유와 배움을 통해 자신의 본성이 영원히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똑똑히 이해하고 영원한 무한한 본성을 포함하는 몸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며 모든 사물이 자신의 필연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세상이 다 좋은 세상임을 알게 된다.

‘위기지학’(爲己之學)은 자신을 위해 배우고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 몸이 없었다면 나도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자기 몸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 몸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자기 배꼽을 바라볼 때면 ‘엄마아빠로부터 태어난 자식이’란 사실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보면 우리 몸 그 자체에 대한 자명하게 이해하는 우리 몸에는 영원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위기지학의 핵심이 자기 몸에 있는 배꼽을 보는 데에 있다는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나의 ‘배꼽’을 보는 즉시 ‘나’는 ‘나’ 스스로 ‘나’ 존재의 필연성을 이해합니다. 지금 ‘나’에게 ‘배꼽’이 ‘있다.’는 사실로부터 지금의 ‘나’를 낳아주신 ‘엄마아빠’가 ‘있다.’는 사실은 영원 그 자체의 필연성입니다. 내가 ‘나’의 머리를 숙여 내 ‘배꼽’을 보자마자, 그 찰나의 순간 속에 있는 ‘나’는 내 몸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를 명석판명 그 자체로 이해합니다. 내 배꼽은 엄마아빠의 존재를 ‘필연적으로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없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합니다. 내 몸에 고유한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의 진실이 ‘나’의 생각 안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²⁸⁾

그러므로 공자의 위기지학은 우리로 하여금 몸의 필연성을 분명히 알며, 자신을 믿음으로써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학문이다. 그리하여 우리 각자가 우리 자신의 몸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살아가며 또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몸을 사랑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공자가 주장한 학문의 기초는 바로 위기지

28)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67.

학이다.

2. 하학상달

공자에 의하면 학(學)은 생각하는 마음에 고유한 능력으로서 인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정신력 안에서 자기 몸의 생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는 인과의 필연성을 절대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과학’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 몸에 나아가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인과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위기지학’이다.

우리는 몸으로 생겨나 몸으로 놀이기 때문에 우리 몸-놀이의 진실을 이해하기에 앞서 몸-생김부터 이해해야 한다. 지금 나의 몸은 생겨난 몸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몸-생김에 나아가 생김(性) 그 자체의 필연성(性理)을 이해하는 것이 몸-생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다. 공자의 학문이 위기지학의 과학이라는 사실은 몸-생김 그 자체의 인식으로서 ‘하학상달’(下學上達)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자공이 말했습니다.

“어째서 선생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이런 바보 같으니’ 하지 않고], 아래를 배워서 위와 통하니[개고생 하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아니],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²⁹⁾

자 환 막 아 지 야 부
子曰 莫我知也夫.

자 공 환 하 위 기 막 지 자 야
子貢曰 何爲其莫知子也.

자 환 불 원 천 불 우 인 하 학 이 상 달 지 아 자 기 천 호.³⁰⁾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

공자에 의하면 학문의 순서가 분명하다. 하학(下學) 안에서 상달(上達)이다. 하학과 별개로 상달이 없다. 하학 안에서 상달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순서의 중요성을 조중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9)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0.

30) 『論語』, 「憲問」 37장.

이를 거꾸로 하면 ‘상학이하달’ 되는데 이때는 ‘미우나 고우나’가 아니라 미운 놈 잡는 공부(上)가 된다. 위[上]를 공부해 봤다는데 그러고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미운 놈, 바보 같은 놈이 천지로 널려있다. 그래서 달달 볶는다. 명령을 하달하느라 바쁘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이 아니라 전쟁이다. 학문學問, 수도修道, 수신修身이 다 같은 말인데 ‘하학이상달’하는 ‘개고생’이다. 공자 말씀이다.³¹⁾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은 지금 자기의 몸을 배움으로써(下學) 세상 모든 몸의 진실을 이해(上達) 하는 것이다. 생각과 배움을 통해서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다 좋은 몸, 그리고 다 좋은 몸으로 살아가는 다 좋은 세상을 이하게 된다. 이 이해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로부터 필연적으로 확인되는 “나”를 아는 자, 그제 하늘이다.”의 뜻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상 모든 몸을 이해하는 한에서, ‘나’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세상의 행복도 분명하다. 세계는 전쟁도 없을 것이다. 성동권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下學(하학)”은 생각하는 마음이 감각으로 지각한 몸에 나아가 생각(思)하고 배워(學)보면, 몸 그 자체의 진실로서 ‘성리’(性理: 몸의 本然之性)를 분명하게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기이해’ 안에서 마음은 자기 몸의 ‘성기’(性氣: 몸의 氣質之性)를 배우고 궁극적으로 자기 몸의 순수지선(純粹至善)을 이해합니다. 이 이해로 배움의 진실을 밝히면, 엄밀히 말해서 배움[學]은 지금 있는 자기 몸[下]의 진실로서 순선무악(純善無惡)을 ‘다시’ 배워서[學] 확인하는 것일 뿐입니다. 배움의 목적이나 공효는 자기가 배우는 자기 몸 안에 이미 본래부터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下學而上達(하학이상달)”의 “上達(상달)”이라 합니다.³²⁾

몸은 ‘합리기(合理氣)’의 몸으로 존재한다. 지금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하는 우리 몸을 기(氣)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마음이 기(氣)로 존재하는 몸에 나아가 그것의 생김에 관하여 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할 때, 그것을 리(理)라 부른다. 우리의 마음이 자기 몸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인과의 필요성을 배워보면 몸은 이미 본래부터 존재하는 성리(性理: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를 자기 본성으로 삼아서 성기(性氣: 지금 내 몸-생김의 생김)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위와 같은 존재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 즉 존재에 고유한 논리적 선후를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31)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1.

3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10.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리기는 【정의 5와 6에 따르면】 불상리(不相離)이면서 동시에 불상잡(不相雜)이다. 그런데 【정의 4의 해명에 의하면】 리(理)는 자기 존재에 대한 개념을 자기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함이 없이 오직 자기 안에서만 형성하는 자기원인이며 그와 동시에 모든 기(氣)를 낳는 단 하나의 필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기의 기에게 리는 【정의 4에 의하여】 자기 존재의 필연성이다. 즉, 합리기의 기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리 안에 존재하며 오직 리만을 따라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드러난다. 그런데 합리기에서 ‘리기 인과’의 필연성은 【정리 1의 보충에 의해】 성정(性情)을 떠날 수 없다. 그러므로 합리기의 성(性) 안에서 성리(性理)로부터 성기(性氣)라는 인과의 필연성은 【공리에 의해】 합리기의 정(情) 안에서 정리(情理)로부터 정기(情氣)라는 인과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첫 번째로 증명되어야 할 점이다.³³⁾

“합리기의 성(性) 안에서 성리(性理)로부터 성기(性氣)라는 인과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이 하학상달의 핵심이다.

이상의 논의에 근거하여 몸-생김의 필연성을 향한 명백한 인식으로서 ‘상달’(上達)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학문의 진실로서 상달(上達)을 몸-생김에 관하여 인과의 필연성 안에서 자기 몸에 대한 자기이해로 정의하는 한에서, 우리는 자기 몸에 고유한 엄마아빠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을 상달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몸은 생김에 관한 한 엄마아빠의 존재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내 몸에 고유한 영원의 필연성 그 자체의 진실이 ‘나’의 생각 안에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영원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는 지금 내 생김에 관한 한 단 하나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엄마아빠는 ‘생명’ 그 자체이며 본성은 ‘영원’입니다. 내 배꼽이 자명하게 증명하는 엄마아빠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의 내 생김을 낳는 단 하나의 필연성이므로, 내 생김의 진실은 영원한 생김이 낳은 영원한 생김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나’는 엄마아빠를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 스스로 ‘나’ 자신의 생김을 영원성으로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의 배꼽에 근거하여 ‘엄마아빠’의 필연성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³⁴⁾

우리 자신이 자기 몸에 고유한 인과의 필연성(엄마아빠의 필연성)을 배우고(下學) 이해한다면 하학이상달의 진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상달’이다. 하학(下學)이 지금 나의 몸에 나아가 몸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라면, 그 공효(功效)로서 상달(上達)은

33) 성동권,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97(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21), pp. 455-456.

3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67.

몸이 본래부터 자기 안에 품고 있는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엄마아빠’를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이 『논어』의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강우(江雨)의 초월주의

강우(江雨)는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학문의 감각적 본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학”은 지식적 학습을 끊임없이 내재적인 덕성으로 전환시킬 수 있고 개인의 덕성을 초월함으로써 천지와 통할 수 있다.³⁵⁾

강우에 의하면 하학(下學)은 지식 활동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쌓음으로써 내재적인 덕성을 전환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덕성을 초월한다고 한다.

그러나 강우의 논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공자의 위기지학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이해되는 하학상달을 어긴다. 첫째, 위기지학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환해야 하는 내재적 덕성이나 초월적 진리가 따로 없다. 지금 내 몸 안에 몸 그 자체의 필연성이 영원의 결정으로 존재한다. 둘째, 하학상달에서 상달은 초월의 결과가 아니라 하학으로 이해하게 되는 내 몸 그 자체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서 여기에는 ‘초월’이라는 말이 성립할 수 없다.

하학(下學)은 지식적인 학습을 끊임없이 내재적인 덕성(德行)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진실을 배우는 것이다. 이것이 공자의 학(學)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신체에 나아가 그에 고유한 진상(真相)과 그로부터 필연적으로 연역되는 감정의 필연성을 똑똑히 이해해야 한다. 그때 비로소 몸과 감정에 고유한 필연성 안에서 다른 사람의 몸과 감정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세상의 만물을 그 자체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자의 위기지학을 정리하면, 강우가 정의하는 하학상달은 다른 사람에게서 지식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먼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강우는 개인의 덕성을 초월하여 덕성과 천지를 통하게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논자는 ‘초월’이라는 말이 학문의 진실을 은폐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학문은

35) 江雨 (강우), “淺析《論語》‘下學上達’內涵(논어 ‘하학상달’의 내실을 분석),” 『어저우대학학보(鄂州大學學報)』 제24권, 제5기(鄂州大學(어저우대학), 2017년 9월), p. 19.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由于學的求感通本性, “下學”可以將知識性的學習不斷轉化爲內在的德性, 又超越个人德性感通德性天地, 由此上達。

초월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본래부터 내재(內在)하는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엄밀히 말해서 ‘초월의 결과 도달’이라는 말은 학문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도달’의 뜻으로 ‘지’(至)를 쓴다면, 이때의 ‘至’는 자기가 자기 몸에 도달하여 자기 몸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몸 그 자체의 본성을 다시 확인하는 재인식(再認識)으로서 至이다.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은 부모에서 나오고 부모의 자연적인 본성은 부모의 부모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은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다. 원래부터 우리의 몸에는 영원무한의 사랑과 생명이 있다. 이 사실을 자기 몸 안에서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위기지학이며 하학상달이다. 이 사실은 개인의 덕성을 초월하는 ‘통덕성 천지’가 아니라 내 몸의 본성의 필연성을 배워서 세상 만물의 본성의 필연성(감통덕성 천지)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학상달이다.

2) 유부화동(劉付華東)의 목적론

유부화동(劉付華東)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하학 인사(자기의 존경과 함양涵養을 떠나지 않음), 즉 인륜일용(人倫日用) 사이에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窮理) 축적하여 점진한(漸進) 후에 몸을 돌려 자신을 절개하고 힘써 행하여 최종적으로 하늘의 이치에 도달하는 것이다.³⁶⁾

유부화동에 의하면, 하학(下學)은 “인륜일용(人倫日用) 사이에 사물의 이치를 궁리하고(窮理) 축적하여 점진(漸進)”하는 것이다. 그 결과 “몸을 돌려 자신을 절개하고 힘써 행하여 최종적으로 하늘의 이치에 도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위기지학에 근거하여 보면, 배움의 순서를 어기고 있다. 먼저 내 몸의 본성을 배우고 타인의 신체의 본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며 세상 만물의 필연성에 이르러야 한다. 엄격히 말해서 공자의 위기지학은 하학이며, 핵심은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 자기 몸의 본성 및 천지만물의 몸에 고유한 본성을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학상달이다. 오직 이 방법만이 세상 모든 몸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기초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유부화

36) 劉付華東 (유부화동), “下學上達：朱熹道德-形上學的能力之知探究(하학상달: 주희 도덕-형학의 능력에 대한 지식 탐구),” 『중국공산당 Ningbo시위원회 당교학보(中共宁波市委党校學報)』 제2기(中國共產黨宁波市党校(중국공산당 Ningbo시위원회 당교), 2022), p. 26.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下學人事(其間不離主敬涵養), 即于人倫日用之間即物窮理, 積累漸進, 然后反身切己, 并力行之, 最終上達天理。

동은 공자의 학문 방법을 정면으로 어기고 있다.

그러므로 공자의 학문을 우리가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면, 학문의 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쉽다. 우리 자신 스스로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고, 그것으로 세상 모든 몸(만물)을 배우는 것이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문의 순서이다. 우리는 먼저 우리 몸의 필연적인 본성을 알아야 한다. 이것으로 세상 만물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먼저 배우고 자신의 본성을 배우는 것이 아니다.

3) 주근근(周勤勤)의 의지론

주근근(周勤勤)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하학’의 노력을 통해 ‘상달’은 ‘본체의 지선’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성은 본래 선하기 때문이다. ‘상달’ 안에 ‘하학’이 있다. 예악지교(禮樂之教)의 치지(致知)가 가장 중요하다. 오직 학문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 배움을 버리고 성이 없다.³⁷⁾

주근근에 의하면 상달은 하학의 결과이다. 이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을 위한 의지력이다. 따라서 주근근의 하학상달은 실질적으로 의지력이다.

상달은 본체지선이다. 왜냐하면 인성은 본체지선이기 때문이다. 학문만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하학하면 본체의 지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감정은 원래부터 순수지선(純粹至善)이다. 행동으로 지선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를 통해 우리 몸이 원래 순수지선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상달이다. 그 결과 다 좋은 세상이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엄밀히 말해서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으로 배움을 버리고 인성이 없는 것은 배움을 하지 않으면 인성이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논자가 이해하는 인성은 내 몸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본성이다. 우리는 배움과 사유를 통해 자신의 몸에 존재하는 필연적인 본성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몸의 필연적인 본성은 배움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존

37) 周勤勤 (주근근), “‘知行合一’ 与 ‘下學上達’ -王陽明与方以智比較研究(‘지행합일’과 ‘하학상달’)- 왕양명과 방이지 비교 연구,” 『왕학 연구(王學研究)』 제9기(貴州學院(귀주대학), 2022년), p. 148.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通過做 “下學”的功夫, 即可“上達”于“本体之至善”, 因爲人性本善, “下學”即藏“上達”, 禮樂之教貴于致知, 唯學乃能正行无眚, 舍習无性, 犹一在二中。

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필연적인 본성을 똑똑히 이해하고 세상 만물의 필연적인 본성을 이해하면 천명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

하학상달의 하학은 수신양성(修身養性 : 내 몸의 진실을 배움)이고 자신을 위한 학이다. 상달은 사리를 밝힌(明事理)다.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은 내 몸 안에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엄마아빠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한히 변화하는 우리 몸의 진실은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생명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이상으로 행복은 없기 때문에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는 뜻밖에 본래부터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 본래부터 지금 우리 자신의 몸이 이 진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성스러운 사실을 깨닫는다. 이 사실을 공자는 천명(天命)에 대한 인식으로 정리한다. 다음 항목에서 이 주제를 자세하게 논의 하겠다.

3. 지천명

우리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했을 때 깨닫는 것이 바로 ‘지천명’(知天命)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하학상달에 이어서 공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이런 바보 같으니’ 하지 않고], 아래를 배워서 위와 통하니[개고생 하는 여기가 천국인 줄 아니],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³⁸⁾

자 원 불 원 천 불 우 인 하 학 이 상 달 지 아 자 기 천 호
子曰 不怨天 不尤人 下學而上達 知我者 其天乎.³⁹⁾

공자는 하학상달의 결과를 “나’를 아는 자, 그게 하늘이다.”라고 말했다. 자기 몸 에 나아가 자기 몸 안에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엄마아빠’를 알면, 그 앞 속에서 우리 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본래부터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이때 우리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38)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330.

39) 『論語』, 「憲問」 37장.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을 우리가 ‘천’(天)으로 정의하는 한에서, 당연히 하학상달의 결과는 몸으로 생겨나는 우리가 天 안에서 생겨난다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사실이 자기 안에서 하늘(天)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이다.

하늘(天)로부터 지금 자기 몸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공자는 천명(天命)이라 한다. 영원무한의 하늘이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몸에 나아가 인과적 필연성으로 자기 몸의 진실을 배우면, 그 즉시 천명(天命)을 인식하게 된다. 그래서 지천명(知天命)은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자명하게 자기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 안에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사랑과 생명을 이해한다는 뜻이다. 이 사실을 공자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15살에 공부하는 데 뜻을 둔 후 나이 30에 논리가 서고, 40에 마음이 유희되지 않고 50에 내 팔자가 상팔자라는 것을 알고, 60에 무슨 얘기를 들어도 거슬리지 않고[다 예쁘게 들리고], 70에 중된 마음[만 마음이 아님]이 원하는 비가 범도에 어긋나지 않았다.”⁴⁰⁾

子曰 吾十有五而志于學 三十而立 四十而不惑 五十而知天命 六十而耳順 七十而從心所欲 不踰矩.⁴¹⁾

성동권은 지천명(知天命)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知天命(지천명)”은 자기 몸의 생명을 영원성 그 자체인 신성(神性)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합리기(合理氣)로 존재하는 자기 몸에 나아가 “성리(性理: 몸의 본然之性):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입니다. 이로부터 우리가 ‘지천명’(知天命)을 ‘성리’(性理)에 대한 명석판명의 이해로 이해하는 한에서, 천명(天命)의 성리(性理)는 감정과학의 공리(公理)에 의해서 마땅히 정리(情理)로 존재해야 합니다.⁴²⁾

천명(天命)은 성리(性理: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이지만, 사실은 지금 내 몸의 배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이해하는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 자체인 ‘엄마아빠’이다. 이 존재를 우리는 하늘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원무한이 ‘하늘’(天)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존재의 생명과 사랑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몸의 본성은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며, 이것이 천명이다. 따라서 천명

4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63.

41) 『論語』, 「爲政」 4장.

4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43.

이나 성리(性理)는 내 몸이 자기 존재의 필연성으로서 담고 있는 자신의 본질, 즉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현대 중국학자들이 『논어』의 위기지학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명하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손위(孫偉)의 도덕적 사명

손위(孫偉)은 지천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천명을 아는 것은 군자가 하늘이 부여한 도덕적 사명과 그에 따라 반드시 져야 할 대가를 책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자는 자신이 져야 할 현실적 대가를 예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⁴³⁾

손위에 의하면 천명(天命)은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도덕적 사명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책임져야 하는 대가이다. 천명을 아는 것은 자신이 져야 할 현실적 대가를 예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공자의 위기지학의 결과로서 ‘지천명’(知天命)은 마음이 자기 사유의 능동성에 근거하여 자기 몸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감각적 현상이 아닌 그 자체의 필연성으로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다. 자신의 마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사유함으로써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사유의 능동성을 따라서 자기 몸을 믿고 배운다. 그 결과 자기 몸 안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자명하게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의 핵심은 자신의 심신(身心)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명(天命)은 하늘(천)이 우리에게 부여한 도덕적 사명이 아니다. 천명을 안다고 해서 자신이 져야 할 현실적 대가를 예지하는 것도 아니다. 사유의 능동성을 통해 우리 몸을 자명하게 배우면, 몸은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안에서 생겨난다는 사실을 진리의 필연성으로 명확하게 이해한다.

2) 풍신(馮晨)의 윤리 실천

43) 孫偉(손위), “從‘知天命’到‘制天命’——荀子天命觀思想新探(‘지천명’에서 ‘제천명’까지——순자 천명 관 사상의 새로운 탐구),” 『철학 동태(哲學動態)』 제10기(中國社會科學院(중국사회과학원), 2020), p. 53.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知天命就意味着君子要承担天所賦予的道德使命和由之所必須承担的代价, 君子既然能預知自己將要承担的現實代价, 所以君子不會畏懼。

풍신(馮晨)은 지천명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지천명의 과정은 한 사람이 윤리(倫理) 실천에서 본심(本心)의 역할을 끊임없이 발휘하고 본심을 활용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다. 본심은 이 과정에서 비로소 자신을 심사하고 반성하며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⁴⁴⁾

풍신에 의하면, 지천명은 일상생활 윤리 실천에서 본심의 역할을 발휘함으로써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반성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풍신의 설명으로 공자의 지천명을 이해하면, 지천명은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무론이 된다. 뜻밖에 행동에 대한 가치판단과 그에 대한 해석에 의존함으로써 지천명의 여부를 가리게 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에서 지천명은 더 이상 천명을 향한 명확한 인식이 아니라 감각으로 지각되는 행동에 대한 해석으로서 가치판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이 경우 서로 다른 감각과 그에 대한 해석에 의해서 지천명이 좌우된다.

결과적으로 누구의 판단이 지천명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제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지천명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지천명은 위기지학으로 확인하는 자기 이해의 진실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아닌 다른 어떤 존재로부터 지천명을 확인받아야 하는 해석과 그것을 위한 행동실천의 의무를 짊어지기 때문이다. 이 결론은 공자의 위기지학 및 하학상달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다음으로 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지천명은 사여학(思與學)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이해되는 자기의 진실이다. 자기 몸에 고유의 본성의 필연성을 자기 스스로 배우는 것이다. 이 점은 반드시 명확해야 한다.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본심(本心)이 무엇인지 분명하다. ‘본심’은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신체 그 자체에 대한 진실을 자명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마음은 자기 몸에 대해서 사유의 능동으로 자기 스스로 자명한 이해를 형성할 수 있다. 이것이 맹자의 ‘마음을 다 한다’(盡心)이다. ‘마음을 다 한다’(盡心)에서 ‘지천명’(知天命)까지 맹자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맹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다할 수 있다면 본성을 알게 될 것이다.

44) 馮晨(풍신), “知天命：孔子的自我審視(지천명：공자의 자아심시),” 『도덕과 문명(道德與文明)』 제4기(天津社會科學院(천진사회과학원), 2018), p. 62. ※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知天命的過程是一個人倫理實踐中不斷發揮本心的作用，運用本心處理事務的過程，本心在這個過程才有機會靜靜的審視自己、反省自己、同時也確定自己。

자기 본성을 아는 것이 하늘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본심을 보존하고 자기의 본성을 수양하는 것이 하늘을 모시는 것이다. 단명하거나 장수하는 것은 두 가지 길이 없다.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무한의 생명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 몸을 배우고 이해하여 기다리는 것은 곧 자신의 천명을 세우는 것이다.

맹 자 완 孟子曰：“盡其心者 知其性也 知其性 則知天也. 存其心 養其性 所以事天也 夭壽不
이 수 신 이 사 지 소 이 립 명 야 貳 修身以俟之 所以立命也”45)

자기의 ‘마음을 다 한다’(盡心)는 것은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의 사(思)이다. 마음은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자기이해를 형성한다. 이 이해가 자기의 마음을 다 하는 진심(盡心)이다. 이 마음이 지금 자기의 몸에 나아가 몸-생김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 이 이해가 ‘지기성’(知其性)이다. 이렇게 마음이 자기 몸에 나아가 몸-생김 그 자체의 필연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원무한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신(神) 또는 천(天)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이것이 곧 하늘을 이해하는 지천(知天)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형성하는 자기이해 안에서 자기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면, 그 이해는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이 이해가 곧 하늘에 대한 이해로서 하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으로 자기는 자기 생명의 영원무한을 깨닫기 때문에 그 즉시 자기 몸 생명의 영원무한을 깨닫게 된다. 즉, 삶과 죽음이 영원의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것이 ‘요수불이’(夭壽不貳)의 행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의 생명을 누리는 최고의 행복은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수신(修身)이다. 이것으로 자기는 자기 몸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다.

그러므로 맹자는 공자의 지천명(知天命)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몸-생김의 진실을 향한 마음의 인식 방법을 요약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리한다. 생명의 도(몸-생김)를 이야기하고, 다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본성을 알고, 나아가서는 하늘(신)을 알고, 마지막으로 생명의 도(천명)를 아는 것이 인생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다. 자기 마음의 진실을 힘껏 공부하며 자기 고유한 본성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고, 자기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함으로써 천지 만물의 필연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상, 공자의 지천명 및 위기지학과 하학상달에 대한 현대 중국학자들의 논문 비판을 마무리한다. 이 세 가지 논점을 분석하고 요약하면 공자의 학문은 몸에 대한 타당한 인식을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 결론으로

45) 『孟子』 「盡心上」.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부터 몸-놀이의 진실로서 감정 또한 천명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본 논문의 연구방법에 근거하여 분명하다. 이것으로 공자의 감정과학을 증명한단다.

제3장 공자의 감정과학에 근거한 「관저」 분석

감정과학의 행복은 우리 자신이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본래부터 순수지선 또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속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행복은 이미 완전하게 우리 안에 갖추어진 것이기 때문에 행복에 관한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결핍일 수 없고, 따라서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감정과학은 ‘나는 天命으로 존재하는 天子이다.’라는 명제로 요약한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행복 속에서 생겨나 놀이한다는 사실을 뜻한다. 이 진실을 자기 몸에서 이해하면 행복이지만, 이 진실을 모르면 불행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공자의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행복의 진실을 『시경(詩經)』의 「관저(關雎)」에서 밝히고자 한다. 앞에서 정리한 감정과학의 논리에 근거하여 시경의 관저를 번역하고, 그에 근거하여 공자가 밝힌 행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이해하겠다.

제1절 감정과학의 「관저」 번역

1. 원문에 대한 번역 및 주석

1) 「관저」 원문

관저
關雎⁴⁶⁾

관관지구 제하지주 요조숙녀 군자호구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참지행채 좌우류지 요조숙녀 오매구지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구지부득 오매사복 유재유재 전전반측
求之不得，寤寐思服。悠哉悠哉，輾轉反側。

참지행채 좌우채지 요조숙녀 금슬우지
參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

46) 『詩經』, 「周南」, 「關雎」.

참 차 행 채 좌 우 모 지 요 조 숙 녀 종 고 락 지
參差荇采, 左友芼之. 窈窕淑女, 鐘鼓樂之.

2) 번역 및 주석

번역과 주석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1) 제1행

관 관 저 구 재 하 지 주 요 조 숙 녀 군 자 호 구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번역】

‘관관’하고 물수리가 강 속의 조각배 위에 서로 동반하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는 정말 군자의 좋은 배우자이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관관’하고 물수리가 황하 강가 모래톱에서 노래합니다.
평생을 사랑할 아름다운 아내를 찾는 나의 마음입니다.⁴⁷⁾

【주석1】 雎鳩(저구)

《毛傳》：“雎鳩，王雎也。”

『모전』：“저구, 왕저.”⁴⁸⁾

《禽經》：“王雎，雎鳩，魚鷹也。”

『금경』：“왕저, 저주, 어매.”⁴⁹⁾

『현대한어사전』：“저구는 새 이름이고 등은 갈색이며 머리, 목과 복부는 하얗다.
성질이 사납다. 나무나 바위에 둥지를 틀고 수면을 날아다니며 물고기를 먹는다. 통

47)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34.

48) 『毛傳』《毛詩故訓傳》.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49) 『禽經』.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칭 어매라고 부른다.”⁵⁰⁾

사랑을 갈망하는 저구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 왜냐하면 저구는 생겨난 것이므로 자기 존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이 저구를 있게 했다는 사실은 어길 수 없는 진실이다. 이 진실은 이미 본 논문의 2장 2절 세 번째 항목 ‘지천명’(知天命)에서 확인했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에게도 필연적이다. 저구의 노래에서 사랑을 생각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랑 안에서 생겨나 사랑을 하도록 결정되어 있다는 영원의 필연성을 증명한다. 그러므로 자연의 생물로서 저구는 행복을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저구에 대한 생각과 배움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몸이 필연적으로 행복을 향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주석2】 述(구)

《毛傳》：“休，定也。述，合也。”

『모전』：“쉬, 정하다. 구, 합하다.”⁵¹⁾

이곳은 배우자, 합, 집합을 뜻한다. 우리 몸의 본성은 이미 철두철미 인과의 필연성 안에 존재하며, 이 필연성은 사실상 내 안의 ‘부부’(夫婦)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본래부터 우리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성을 자각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 자신의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서 영원무한의 사랑을 인식하기 이전에 우리는 몸-생김의 진실 그대로 몸-놀이에서 사랑을 행복으로 갈망한다. 몸-놀이의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몸-생김의 진실로서 ‘엄마아빠-나’를 몸-놀이에서 실현하고자 욕망한다. 이 욕망이 몸에 고유한 본성이다.

(2) 제2행

참 차 행 채 좌 우 류 지 요 조 숙 녀 오 매 구 지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번역】

50) 『현대한어사전』 《現代漢語字典》※ 인용문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鶚, 鳥名, 背部褐色, 頭、頸和腹部白色。性凶猛。常在樹上或岩石上筑巢, 常在水面上飛翔, 吃魚類。通称魚鷹。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51) 『毛傳』 《毛詩故訓傳》.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건지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꿈에서 깨어나면 잊을 수가 없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같은 듯 서로 다른 풀들 사이로 이리저리 헤치며 다닙니다.

마치 자나 깨나 아름다운 그녀를 찾는 나의 마음 같습니다.⁵²⁾

【주석】 寤寐(오매)

오(寤): 잠에서 깨다. 매(寐): 잠이 온다. 오매구지(寤寐求之): 잠에서 깨든 꿈에서든 사랑을 찾는다는 뜻이다. 이것은 인간 욕망의 진실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우리 몸의 욕망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자기 몸에 고유한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뜻밖에 사랑의 욕망이 심각한 결핍증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랑을 구하는 욕망은 몸-놀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몸-생김의 사랑이 이미 내 몸에 고유한 본성으로서 엄마아빠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몸-생김의 사랑이 몸-놀이의 욕망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랑을 구하는 욕망은 절대적으로 결핍일 수 없다. 따라서 ‘오매구지’는 몸-생김의 사랑 그대로 몸-놀이의 사랑을 실현하려는 완전성이자, 절대적으로 사랑의 결핍이 아니다.

(3) 제3행

구 지 부 득, 오 매 사 복. 유 재 유 재, 전 전 반 측.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번역】

아름다운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모두 그리워진다.

이리저리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뒤척이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5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34.

찾으려 애쓰나 찾을 수 없어 자나 깨나 그녀 생각뿐입니다.
그녀를 향한 그리움 끝없이 잠도 못 자고 밤새 생각합니다.⁵³⁾

【주석】 思服(사복)

사복(思服): 끊임없이 생각하다. 복(服): 반복, 숙련의 뜻이다.

이곳의 ‘생각’은 매우 중요하다. 동시에 ‘감정과학’의 핵심이다. 관저의 노래를 듣는 시(詩)의 주인공은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을 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핵심은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구하는 우리의 주인공은 절대적으로 생각을 놓아버리지 않는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진전반측(輾轉反側)은 사랑을 찾아서 사랑을 구하는 주인공이 몸-놀이에서 겪는 슬픔(哀) 한 가운데에서도 절대적으로 자기의 생각(思服)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의 주인공은 사랑을 구하는 슬픔 때문에 생각하기를 접지 않는 것이.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집중해야 하는 주제는 시의 주인공이 생각의 결과 무엇을 깨닫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4) 제4행

참 차 행 채 좌 우 채 지 요 조 숙 녀 금 슬 우 지
參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

【번역】

울망줄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골라 뽑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를 마침내 만나서 금슬을 연주하면 벗을 합니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같은 듯 서로 다른 풀들을 헤치다 찾던 풀을 뜯습니다.
내가 찾던 그녀를 찾아내어 사랑하는 나의 마음입니다.⁵⁴⁾

【주석】 友(우)

53)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34.

5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334.

우(友): 일반적으로 동사로 쓰이며 뜻은 ‘친애하다’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를 ‘사복(思服)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사랑을 구하는 시의 주인공은 구지부득(求之不得)과 전전반측(輾轉反側) 사이에서 자기의 생각(思服)을 반복하고 있다. 사랑을 구하지만 사랑을 구할 수 없다는 ‘구지부득’은 ‘전전반측’의 슬픔이다. 그러나 이 슬픔 안에서 시의 주인공은 자기의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이에 근거하여 생각해 보면, 「관저」를 감정과학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의 주인공이 무슨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시의 문맥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 이외 없다.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시의 문맥은 사랑을 구하고자 하나 사랑을 얻지 못하는 슬픔이다. 이 슬픔 안에서 주인공이 생각을 한다면, 결국 사랑에 대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즉, 시의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생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사랑에 대한 생각의 결과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일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2장의 감정과학에서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간단히 요약하면, 우리가 사랑을 몸-생김에서 이해하는 한에서 사랑은 우리 몸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 사랑이 몸-놀이에도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생김으로부터 놀이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추구한다. 이것이 사랑에 대한 생각의 자명(自明)이 이해하는 사랑의 진실이다.

이 사랑의 진실을 시의 주인공이 과연 이해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지금 우리가 읽어 보는 「관저」의 4행이다. 이것은 3행에 이어서 오는 것이므로 4행은 3행의 핵심 주제인 사복(思服)의 결과이다. 이에 근거하여 보면, ‘요조숙녀’는 내 몸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몸-생김 그 자체의 진실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다. 왜냐하면 4행에서의 ‘요조숙녀’는 사복(思服)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금슬우지’는 내 몸-생김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사랑으로서 요조숙녀와 벗을 한다는 뜻이다. 즉, 자기 몸에서 영원무한의 사랑을 확인한 것이다.

(5) 제5행

참 차 행 체 좌 우 모 지 요 조 숙 녀 종 고 락 지
參差荇采, 左友芼之. 窈窕淑女, 鐘鼓樂之.

【번역】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해치며 고르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종을 울리고 북을 쳐서 그녀를 기쁘게 하다.

성동권은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번역한다.

풀들을 사이에서 찾아낸 풀을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그녀와 함께 영원의 사랑을 나누는 나의 마음입니다.⁵⁵⁾

【주석】 樂(락)

락: 동사로서 즐거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곳의 즐거움은 행복의 결말을 나타낸다. 우리 몸의 그 자체의 진실을 알게 되면 내 몸에는 원래부터 영원한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다. 그래서 『시경(詩經)』의 「관저(關雎)」라는 가요는 우리가 본래부터 행복으로 영원히 결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2. 「관저」의 감정과학

1) 「관저」의 번역

관 저
關雎⁵⁶⁾

관 관 저 구 재 하 지 주 요 조 숙 녀 군 자 호 구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관관’하고 물수리가 강 속의 조각배 위에 서로 동반하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는 정말 군자의 좋은 배우자이다.

참 차 행 채 좌 우 류 지 요 조 숙 녀 오 매 구 지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건지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꿈에서 깨어나면 잊

55)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35.

56)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을 수가 없다.

구 지 부 득 오 매 사 복 유 제 유 제 전 전 반 측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아름다운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모두 그리워진다. 이리저리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뒤척이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

참 지 행 채 좌 우 채 지 요 조 숙 녀 금 슬 우 지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울망줄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골라 뽑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를 마침내 만나서 금슬을 연주하면 벗을 한다.

참 지 행 채 좌 우 모 지 요 조 숙 녀 종 고 략 지
參差荇菜, 左友芣之. 窈窕淑女, 鐘鼓樂之.

울망줄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해치며 고르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종을 울리고 북을 쳐서 그녀를 기쁘게 한다.

2) 「관저」의 감정과학 분석

지금까지 『시경』 「관저」의 원문에 대한 번역 및 관련된 주석을 정리했다. 본 논문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관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1) 관 관 저 구 제 하 지 주 요 조 숙 녀 군 자 호 구
關關雎鳩, 在河之洲. 窈窕淑女, 君子好逑.

첫 번째 부분은 총설에 해당한다. 시(詩)를 노래하는 화자(話者)는 사랑을 노래하는 저구(雎鳩)를 통해서 행복을 느끼며, 그와 동시에 자신도 사랑을 욕망하는 감정을 느낀다. 요조숙녀는 사랑을 욕망하는 화자가 꿈꾸는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선(善)이며 최고의 미(美)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사랑으로 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 사실이 ‘군자호구’(君子好逑)이다. 그러므로 총설을 요약하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하고 추구하는 것은 인간 욕망에 내재된 당연한 진리라는 것이다. 이 진리를 ‘이성적 욕망’ 또는 ‘욕망의 이성’이라고 본 논문은 정의한다.

(2) 참 지 행 채 좌 우 류 지 요 조 숙 녀 오 매 구 지 구 지 부 득 오 매 사 복 유 제 유 제 전 전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

반 측
反側.

두 번째 부분은 ‘이성의 욕망’(또는, 이성적 욕망)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성스러운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 최고선(最高善) 또는 최고미(最高美)로 존재하는 최고의 완전성이 ‘요조숙녀’이며, 이것을 구하는 욕망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화자(話者)는 최고의 완전성 그 자체인 ‘요조숙녀’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고의 완전성을 얻는다는 것은 최고선(最高善)과 최고미(最高美)를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 이상의 ‘행복’은 없다. 문제는 관저의 화자가 자기 욕망에 충실하여 최고의 행복을 구하려고 하지만, 얻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점을 ‘오매구지(寤寐求之) 구지부득(求之不得)’으로 확인한다. 최고의 행복을 위해서 ‘최고선/최고미’를 추구하는 것은 필연적이지만, 뜻밖에 그것을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당연히 이런 상태는 관저의 화자에게 ‘슬픔’의 감정으로 드러난다. 이 감정을 ‘유재유재(悠哉悠哉) 전전반측(輾轉反側)’으로 묘사한다. 행복을 위해서 사랑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해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며 전전궁궁하는 모습이다. 동시에 최고의 행복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해서 슬퍼하는 모습이다. 사랑이 곧 최고의 행복인 이유는 사랑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욕망의 이성³에 근거하여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두 번째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이성³에 근거하여 욕망을 따른다는 것은 사랑을 욕망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나 문제는 사랑을 행복으로 추구한다고 할 때 그것을 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의 답을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하나는, 관저의 화자(話者)가 자기 행복을 자포자기(自暴自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유재유재’(悠哉悠哉)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는 뜻이다. 자기 ‘슬픔’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뜻이다.

(3)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鐘鼓

樂之.

여기는 관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 사랑(최고의 완전성)을 추구하지만 구하지 못한 관저의 화자(話者)가 자기 행복을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포기했다면 여기에서 즐거움을 뜻하는 락(樂)이 있을 수 없다. 화자가 자기 행복에 관하여 그것을 얻을 수 없다고 하여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자는 행복(사랑)을 구하는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생각했다. 그 결과 깨닫게 된 행복을 여기에서 노래한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는 마침내 성공한다. 이 성공이 ‘좌우채지’(左右采之)이다. 여기에서 ‘采’(채)는 구하여 갖는다는 것을 뜻하며, 실질적으로 ‘採’(采)와 동일하다. 사랑(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가운데 자기 사랑(행복)에 관하여 생각한 결과 사랑(행복)에 성공하는 것이다. 이 성공과 같은 맥락에서 화자는 자기의 사랑(행복)에 성공했음을 알려준다. 이 성공을 ‘요조숙녀 금슬우지’(窈窕淑女 琴瑟友之)로 이야기한다. 수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애타게 찾았으나 찾지 못한 ‘요조숙녀’를 마침내 구해서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결론에서 우리는 생각을 깊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저의 화자는 사랑(행복)을 밖에서 구했다는 뜻이 된다. 자기에게 없는 사랑(행복)을 밖에서 구하는데 성공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하나는 두 번째 부분에 등장하는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첫 번째의 ‘군자호구’(君子好逑)에 대한 답은 두 번째의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사랑(행복)을 밖에서 구하면, 결국 구할 수 없다는 확인이다. 다른 하나는 ‘유재유재’(悠哉悠哉)이다. 사랑(행복)을 구할 수 없었던 화자는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어떤 의지력으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행동으로 행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구지부득(求之不得)의 슬픔에서 화자가 한 것은 유재유재(悠哉悠哉)이다. 생각하고 생각한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관저의 화자(話者)는 사랑(행복)의 ‘슬픔’ 속에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본 논문은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찾겠다. 지금 관저의 화자에게 가장 큰 슬픔은 사랑(행복)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화자는 ‘사랑(행복)’의 본질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행복)에 관하여 자기는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하는 결핍(缺乏)일까? ‘나’에게는 사랑(행복)이 없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이미 2장에서 정리되고 증명되었다.

사랑(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추구하기 위해서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욕망이 사랑이 자기에게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사실은 사랑을 행복으로 추구하는 자기 자

신에 대한 바른 이해로부터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 존재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한다.

이 이해의 표현이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이다. 관저의 화자는 마침내 사랑(행복)을 얻게 된다. 이것은 자기 ‘몸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안에서’ 본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이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이자 최고의 사랑으로서 요조숙녀이다. 이 요조숙녀가 자기 안이 본래부터 최고의 행복과 사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자명하게 확인한다. 이것을 금슬우지(琴瑟友之)라 한다.

그러므로 관저의 감정과학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내 몸 속에 있는 본성에 따라 존재하는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은 내 몸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이 자명하게 이해하며, 그것은 내 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이다.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이미 본래부터 행복이다.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해가 분명할 때, 내 몸으로 하는 부부의 사랑은 내 몸의 본질로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나의 완전한 행복이 보다 더 큰 완전한 행복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제2절 「관저」의 애이불상

1절은 『시경』의 「관저」를 감정과학으로 번역했으며, 그에 대한 주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 결과 「관저」가 감정과학의 논리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작품에서 우리는 감정과학의 진리를 볼 수 있다. 자신의 감정에서 자기의 몸을 배움으로써 사랑의 진실을 이해한다. 엄마아빠가 ‘나’의 몸을 낳아주셨다는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내 몸의 본성이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결과 최고의 행복이 본래부터 내 몸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진리의 필연성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관저」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에 근거하여 이 작품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이해하겠다.

1. 이미 완전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시경』 「관저」의 시들을 보면 즐겁되 혹하여 빠지는 법이 없고, 슬프되 마음을 상하지 않는다.”⁵⁷⁾

子 曰 關 雎 樂 而 不 淫 哀 而 不 傷.⁵⁸⁾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는 ‘낙이불음’(樂而不淫)과 ‘애이불상’(哀而不傷)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는 위 두 가지 요약 가운데 ‘애이불상’(哀而不傷)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다. 우리는 ‘제3장 1절’에서 행복(사랑)의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행복(사랑)이 자기에게 없다는 생각으로 자기 밖에서 행복을 구하겠다고 나가면, 불행이 보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이다. 「관저」는 행복에 대한 착각으로 인한 불행을 ‘구지부득’(求之不得)으로 이야기 했다.

행복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지금 이 현실은 당연히 ‘슬픔’이다. 이 감정을 공자는 ‘애’(哀)로 이해한다. 문제는 이러한 슬픔의 감정을 느끼는 「관저」의 화자(話者)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행복(사랑)이 자기에게 없다는 잘못된 생각에 갇혀서 행복을 자기 밖에서 계속해서 찾는 것일까? 이 물음에 대한 「관저」의 답은 ‘유재유재’(悠哉悠哉)이다. 「관저」의 화자는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더 깊은 슬픔으로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행복(사랑)을 구하려고 하지만 구할 수 없다는 슬픔 안에서 생각(悠)하고 생각(悠)하는 화자를 만나볼 수 있다.

슬픔 속에서 생각하고(悠哉) 다시 생각을 거듭한(悠哉) 화자가 자신의 생각 속에서 깨달은 것은 자신이 그토록 구했던 행복(사랑)이 자기 안에 본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이다. 이 사실로부터 「관저」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은 행복(사랑)에 관한 한 우리는 이미 완전한 행복(사랑)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사실의 확인과 함께 슬픔(哀)은 더 이상 슬픔의 불행으로 자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행복(사랑)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 슬픔(哀)이 맞지만, 슬픔이 자신의 슬픔 속에서 자기 행복의 완전성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슬픔은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행복의 완전성은 이미 본래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관저」의 화자는 자신의 슬픔에 대한 자신의 생각 속에서 행복이

57)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96.

58) 『論語』, 「八佾」 20장.

원래부터 자기 몸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한마디로, 내 몸은 내가 태어난 순간부터 최고의 완전성을 지니고 있는 성스러운 것이다.

감정과학의 논리로서 인과에 고유한 영원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우리 자신의 몸을 이해하면, 우리 몸은 태어날 때부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몸에 대한 감각적 현상과 그에 의존하는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생각의 질서를 따라서 생각을 거듭한 결과 자명하게 깨닫는 자기 몸의 진실이다. 이러한 생각의 진실이 유재유재(悠哉悠哉)이며, 그 결과 깨닫는 자기 진실에 대한 자명한 이해가 애이불상(哀而不傷)이다.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명하게 이해하는 사실은 영원성 그 자체의 진리이다. 왜냐하면 자명한 이해는 그 어떤 우연성을 용납하지 않으며, 이것은 실질적으로 영원의 필연성에 대한 확인이기 때문이다. 마음이 자기 사유 안에서 자기 스스로 형성하는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영원의 필연성으로 분명한 이상, 마음이 형성하는 자기 몸에 대한 자명한 이해는 이미 완전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애이불상(哀而不傷)은 행복을 구하는 자기 안에 최고의 완전한 행복이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부터 필연적이다.

우리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몸의 진실로부터 확인되는 행복의 진실을 깨닫고 나면, 이 행복의 진실은 세상만물의 몸에도 고유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그 몸에는 본성에 고유한 필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세상만물의 본성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인과의 필연성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로부터 세상만물은 그 자체는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

몸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몸이 살아가는 것 또한 최고의 완전성을 떠날 수가 없다. 이미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몸이기 때문에 그 몸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절대적으로 최고의 완전성을 떠날 수 없다. 그리고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는 것을 ‘몸-놀이’로 이해하고, 그것을 ‘감정’으로 정의하는 한에서 감정의 진실은 영원의 필연성 안에서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몸으로 살면서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인생은 최고의 완전성과 행복 안에 있다. 성동권은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완전성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기는 자기 몸 있는 그대로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

라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욕망의 기초입니다. 이 논리에서 생각해 봅시다. 신적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최상의 행복이 있다면, 우리 욕망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단연한 것이며 지극히 보편적인 진리입니다.⁵⁹⁾

우리 몸은 “있는 그대로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존재”이다. 몸은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자명한 이해를 형성하는 사유의 능동성으로 이해하는 자기 몸의 진실은 자기 본래의 완전성이다. 우리가 자기 몸의 필연적 본성을 똑똑히 이해하면, 자기 몸 안에 최고의 행복이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한 「관저」의 화자가 자기의 슬픔 안에서 깨달은 행복의 진실이다. 이 깨달음을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로 노래했다. 이것이 공자의 애이불상(哀而不傷)이다.

2. 슬픔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

행복을 구하지만 행복을 구하지 못한 결과 느끼는 감정은 ‘슬픔’(哀)이다. 그러나 이 슬픔이 자기 본래의 완전성을 확인하면, 즉 자기 스스로 자신이 본래부터 최고의 행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슬픔은 행복의 완전성 안에 있는 슬픔으로 자기를 이해한다. 이 이해가 감정과학으로 감정의 자기이해이며, 공자의 애이불상(哀而不傷)이다.

위의 요약에 근거하여 논자는 슬픔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슬픔’(哀)이란, 자신의 완전성이 보다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한다고 느끼는 데에서 오는 감정이다.⁶⁰⁾

위의 정의는 스피노자(Spinoza, 1632~1677)의 『에티카』 3부 ‘정서의 정의’ 3번에 근거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은 ‘완전성’이다. ‘완전성’이 ‘불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자신의 ‘완전성’이 보다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한다고 느낄 때 그 감정에 대한 개념이 ‘슬픔’(哀)이라는 감정이다.

59)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58.

60)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3부 정의 3」 (서광사, 2007), p. 153.

사랑을 노래하는 ‘관저’(關雎)를 보면서 화자는 자신도 사랑하고 싶어 한다. 자기 운명의 배필인 ‘요조숙녀’(窈窕淑女)를 만나서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것은 자기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따르는 본능이며, 동시에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의 진실이다. 그러나 화자는 요조숙녀(窈窕淑女)를 구하지만 구하는데 실패한다. 이때 느끼는 감정이 슬픔(哀)인데, 중요한 것은 이때 화자가 자신의 슬픔과 함께 자신을 불행의 주인공으로 끌고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화자는 자신의 슬픔 속에서 유재유재(悠哉悠哉)하면서 전전반측(輾轉反側)한다. 즉, 생각 속에서 생각하기를 멈추지 않는다. 그 결과가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이다. 이것은 화자가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요조숙녀(窈窕淑女)을 밖에서 구하는데 성공했다는 뜻이 아니다. 「관저」를 다시 보면 밖에서 구하는 ‘요조숙녀’는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구하나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자는 끝내 요조숙녀를 만나서 자신의 행복을 확인한다. 여기에서 방법은 ‘생각’이다.

이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은 슬픔이 자기 생각으로 밖에서 구하던 요조숙녀를 자기 안에 있는 진실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슬픔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은 완전성이 불완전성으로 이행이 아니라 보다 더 작은 완전성으로의 이행이다. 화자가 요조숙녀를 구하는 것은 자기의 행복을 보다 더 크게 하려는 행복의 추구이다. 그러나 화자는 요조숙녀를 구하지 못한다. 이는 분명 행복이 보다 더 작아지는 슬픔(哀)이다. 이 슬픔 속에서 화자가 생각한 결과 화자는 요조숙녀를 만난다.

여기에서 요조숙녀는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등장하는 요조숙녀는 자기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이 이유로 슬픔에 대한 화자의 이해는 자신의 불완전성에 대한 확인이 아니라 자기 완전성의 불변 안에서 완전성이 보다 더 커지지 못하고 작아지는 것에 대한 감정일 뿐이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비록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행복에 관하여 자기는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이 깨달음으로 행복의 완전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이 애이불상(哀而不傷)이다.

슬픔을 느끼는 감정이 자기의 진실을 이해함으로써 자기의 본래 행복을 확인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슬픔을 치유한다. 이러한 감정 치유는 뜻밖에 보다 더 큰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슬픔 안에서 행복의 진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슬픔은 절망과 자포자기로 끝나지 않는다. 슬픔의 치유가 곧 사유의 능동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감정의 자기이해는 행복의 완전성에 대한 자명한 확인이므로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의 몸이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사랑과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도한다.

그러므로 슬픔은 부정적인 감정이 아니다. 우리를 불행으로 끌고 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슬픔은 자기 존재에 관하여 본성의 필연성 안에 있다.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진실이 행복을 얻는 데에 실패하면, 그 즉시 슬픔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슬픔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슬픔으로 인해 자포자기의 비극에 빠진다. 이 이유로 감정과학의 분석은 행복을 위한 방법이다. 슬픔에 나아가 생각하고 배워보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은 본래부터 영원의 완전성으로 행복 안에 있다.

제3절 관저의 낙이불음

제3장 제2절의 ‘애이불상’(哀而不傷)에 이어서 낙이불음(樂而不淫)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다. 자기 스스로 자기의 몸에 대해서 배우지 않으면 그 즉시 자기 스스로 자기의 행복을 결핍증에 빠지게 한다. 그 결과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은 끝없는 좌절과 슬픔으로 끝나고 만다. 그러나 자기가 겪고 있는 슬픔 안에서 자기의 행복을 참답게 이해하면, 자기 본래의 행복을 확인하고 회복하게 된다. 이 행복에 근거하여 관저의 낙이불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내 안의 부부

『관저』의 주제는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찾는 것이다. 관저의 노래를 듣는 화자(話者)는 관저의 노래를 통해서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 이 감정으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찾아서 길을 떠난다. 여기에서 화자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요조숙녀’(窈窕淑女)이다. 그러나 요조숙녀를 찾지 못한 화자는 슬픔에 빠진다. 이 슬픔 속에서 화자는 생각을 한다. 그 결과, 찾는데 실패한 요조숙녀를 만나게 된다.

이 요조숙녀를 본 논문은 자기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엄마아빠라고 이해한다. 사람마다 엄마아빠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자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엄마아빠가 없다면 지금 ‘나’의 몸은 존재할 수 없다. 우리는 엄마아빠가 자신의 몸으로 낳아주신 몸으로 생겨나고, 그렇게 생겨난 몸으로 살아간다. 내 몸 그 자체의 진실은 엄마아빠가 자신의 생명을 자기의 사랑으로 낳아준 자식의 몸이다.

이 사실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엄마아빠의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지금 내 몸에 고유한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면 우리는 영원의 필연성으로 행복 안에 존재한다. 영원의 필연성으로 본래부터 내 안에 존재하는 행복은 그 자체가 최고의 완전성이다.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

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영원의 필연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이미 본래부터 영원의 필연성으로 우리 몸 안에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본성으로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생김의 진실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 진실이 엄마아빠이다. 성동권은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엄마아빠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자기 생명의 영원을 이해하는 군자는 이 진실을 자기 존재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의 생명에서 확인하며, 엄마아빠의 생명은 당연히 자기 생명의 영원성으로 생명을 낳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아빠의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물려받아 존재하는 ‘나’는 영원으로부터 영원에 이르는 영원으로 ‘사랑’만을 합니다.⁶¹⁾

지금 내 몸의 배꼽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자기 안에서 이해하는 영원무한한 생명과 사랑 그 자체가 ‘엄마아빠’이다. 지금 내 몸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사실로부터 내 몸의 존재를 정립한 부모의 존재 또한 필연적이다. 한편, 지금 내 몸의 존재는 생명으로 존재한다. 내 몸의 생명을 낳은 부모의 존재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부모의 생명 또한 필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필연의 생명은 오직 생명만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원의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 내 몸의 본성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는 당연히 영원의 생명이다. 그런데 영원의 생명으로 존재하는 엄마아빠는 지금 나의 몸을 낳았기 때문에 동시에 사랑이다. 그리고 영원의 생명이 하는 사랑은 당연히 영원의 사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며 이 존재가 지금 나의 몸을 낳았다는 사실 또한 영원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내 몸이 자기 존재의 필연성으로서 담고 있는 자신의 본질, 즉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과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는 ‘부부’이다.

그러므로 관저의 낙이불음(樂而不淫)은 우리 본래의 행복이며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행복이다. 이 행복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내 안에 존재하는 부부이다. 이 사실의 확인으로 우리는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으로 행복을 가지고 있다. 이 행복이 낙이불음(樂而不淫)의 낙(樂)이다. 그리고 이 행복은 밖에 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결핍이 아니다. 이 사실이 낙이불음의 불음(不淫)이다.

61)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52.

2. 기쁨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

우리가 행복의 진실을 알게 되면 그 결과는 기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내 몸
에 영원무한한 사랑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즉 내 감정(기쁨)이 최고
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기쁨은 행복의 완전성 속에서 내 몸이
감지하는 감정이며 마음은 자기 이해로 행복의 완전성을 깨닫는 것이다. 이 행복의
최고의 완전성을 ‘낙이불음’이라 한다.

위의 요약에 근거하여 논자는 기쁨에 대한 감정과학의 정의를 스피노자(Spinoza,
1632~1677)의 『에티카』 3부 「정서의 기원과 본성에 대하여」에 있는 ‘정서의 정
의’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기쁨’은 인간의 더 작은 완전성에서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⁶²⁾

지금 ‘나’의 몸이 있는 그대로 최고의 완전성 안에서 최고의 완전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진실 안에서 ‘나’의 몸이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화한다면, 이 모든 변화
는 실질적으로 내 몸의 완전성이 보다 더 큰 완전성을 향하여 무한히 나아가는 것
이다. 이 사실을 바탕으로 이미 완전히 행복한 내가 더 크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행
한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더 나아가 이 완전한 행복 속에서 나는 다른 몸과 무한하
게 교차하며 그에 비례하여 무한하게 변화한다. 결국 완전성의 행복은 무한하게 더
커진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욕망의 진실이 환하게 드러난다. 욕망의 본질은 행복의 추구
이다. 몸으로 살아가며 감정을 느끼는 우리의 삶이 감정을 느끼는 것에 비례하여
행복의 완전성이 무한히 증대된다면, 욕망은 감정을 느끼는 것과 동시에 감정에 대
한 이해를 최고의 완전성으로 이해하기를 바라게 되어 있다. 이 욕망의 진실 안에
서 감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 즉시 ‘기쁨’의 감정으로 확인된다. 이 이해의 진
실을 『시경』의 「관저」는 요조숙녀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다.

「관저」의 후반부를 보면, 밖에서 구하던 요조숙녀(窈窕淑女)마침내 자기 안에서
확인한다. 시의 화자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찾았다. 그 결과가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이다. 이 요조숙녀는 밖
에서 추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본래부터 내 몸에 존재하는 영원한 사랑과 생명이다.

62)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3부 정의 3」(서광사, 2007), p. 153.

우리가 사유의 능동성으로 이 진리를 확인하면 자기 본래의 행복을 영원의 완전성에서 이해하게 된다. 이 이해를 공자는 낙이불음(樂而不淫)으로 요약한다. 밖에서 구하는 행복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이해가 행복의 방법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은 행복에 대한 이해는 고대 중국 춘추시대의 공자에게 국한되지 않는다. 조선 시대 성리학자 퇴계 이황(退溪 李滉, 1501~1570)은 자신의 저서 『성학십도』에서 다음과 같이 학문의 핵심을 정리했다.

개 가 불 대 외 구
皆可不得外求⁶³⁾

퇴계에 의하면 학문의 진실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결국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 이외 방법이 없다.

자기 안에 자기가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며, 유교문화의 학문론이 감정과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행복의 진리이다. 내 몸에 고유한 본성을 영원의 필연성으로 이해하면, 그 즉시 우리 안에 행복은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 이 사실을 「관저」는 요조숙녀(窈窕淑女)에 비유하고 있다. 요조숙녀는 내 몸에 본래부터 최고의 안전성으로 존재하는 행복이다. 이 행복에 관한 한 나는 절대적으로 결핍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 바로 ‘낙이불음’(樂而不淫)이라는 것이다.

성동권도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관저」의 ‘낙이불음(樂而不淫)’을 논자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樂而不淫(낙이불음)”은 음란하지 않은 행복입니다. 여기에서 ‘음란’(淫)은 자기에 행복이 없다는 착각으로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행복을 결핍으로 오해해서 행복을 밖에서 구해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음란한 것입니다. 그러나 공자에 의하면 관저의 사랑은 음란한 행복이 아니라 ‘음란 없는 행복’입니다. 그토록 애타게 찾는 ‘사랑’이 본래부터 ‘나’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사랑은 내 몸이 자기 안에 자기 본성의 필연성으로 품고 있는 엄마아빠의 사랑 이외 없습니다.⁶⁴⁾

우리 자신이 자기 몸에 나아가 생김의 진실을 엄마아빠의 존재로 이해하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게 된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63) 퇴계 이황(退溪 李滉), 『성학십도(聖學十圖)』, 「제6도 심통성정도(第六圖 心統性情圖)」.

6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337.

으로서 엄마아빠가 우리 몸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하고, 이 본성으로부터 지금 우리의 몸이 존재한다. 우리 몸-생김의 본성이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진실을 우리 자신의 사유 안에서 이해하면, 이 이해가 곧 최고의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몸의 진실이다. 이것이 감정과학의 방법으로서 사여학(思與學)이다. 그 결과 최고의 행복이 본래부터 우리 몸 안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으로부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기쁨이라면, 이 기쁨의 감정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의 감정은 절대적이며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심지어 슬픔이라는 감정도 이 기쁨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슬픔이라는 감정도 본래부터 영원의 완전성으로 행복 안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는 애이불상(哀而不傷)에서 이미 확인했다.

위의 논의에 근거하여 우리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이 필연적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느끼는 모든 감정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최고의 완전성과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 우리의 모든 감정은 절대적으로 ‘다 좋은’ 감정이다. 순수지선의 존재가 따로 없다. 순수지선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감정으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게 변화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감정은 그 자체가 영원무한의 순수지선이 아니다. 결코 쉽게 사라지거나 짧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이해는 행복을 구하기 이전에 행복을 본래부터 품고 있는 자기 몸의 진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유교문화를 정초한 공자의 감정과학이 위기지학(爲己之學)으로 학문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배움은 무엇보다도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형성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이때 비로소 몸에 대한 참다운 이해와 함께 몸의 생김과 놀이를 일관하는 행복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 안에서 무한한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참다운 행복이다. 감정을 이해할 때, 감정의 좋음을 이해한다.

제4장 현대 행복론에 대한 비판적 탐구

우리는 앞에서 관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행복은 밖에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 마음은 자기 사유의 능동성으로 생각함으로써 엄마아빠에게 고유한 진실인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 자기 몸의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가지고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 이미 완전한 행복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2장과 3장에서 밝힌 행복의 진실에 근거하여 현대 행복론을 러셀과 보들레르를 중심으로 비판하겠다.

제1절 러셀의 ‘행복론’

1. 러셀의 생애와 『행복의 정복』

버트런드 러셀(Bertrand Arthur William Russell, 1872년 5월 18일-1970년 2월 2일)은 영국의 철학자, 수학자, 논리학자, 역사학자, 문학가이다. 버트런드 러셀은 영국 웨일스의 한 귀족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할아버지는 1940년대에 두 차례 영국 총리를 지냈다. 아버지는 당시 극단적으로 개방된 무신론자였다. 러셀의 어머니도 귀족 집안 출신이지만 러셀이 2살 때 세상을 떠났다. 이후 2년이 지나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다.

이러한 가정환경은 러셀을 외롭게 만들었다. 이 외로움은 그로 하여금 홀로 사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리고 이런 시간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유주의적인 가정환경과 할머니의 독립적 성향으로 인해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러한 생활방식으로 인하여 러셀은 대자연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 관심과 함께 그는 많은 책을 읽는데 흥미를 느꼈다.

한편, 러셀은 수학에서도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러셀은 철학자이기도 하지만 수학자이기도 하다. 특히 동시대의 영국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화이트헤드’(Whitehead, 1861~1947)와 함께 『수학의 원리』라는 책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러셀의 제안으로 착수된 것이며, 수학의 전반은 화이트헤드가 기술하였으며 나머지 철학 부분은 러셀이 저술하였다. 이를 근거로 생각해 보면, 러셀의 철학에서 수학이 매우 중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러셀은 학자이기도 했지만, 그에 못지않게 사회적 활동도 열정적으로 전개했다. 동시의 철학자들과 달리 그는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자기가 속한 사회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매우 흥미를 느꼈으며, 그와 관련된 책도 많이 썼다. 그의 일생의 저작 중 대부분은 사회와 정치와 관련되어 있다. 사회에 대한 강렬한 책임 의식이 있었으며, 거시적 안목으로서 사회적 책임감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본 논문이 읽어보는 『행복의 정복』은 위와 같은 러셀의 철학과 사회적 활동을 대표하는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 주 내용은 그가 지식의 확실성에 대한 추구, 그의 사회 재건의 이상, 그리고 전쟁, 정치, 도덕, 교육, 신앙 등 방면의 전통 관념에 대한 의심이다. 이러한 의심의 목적은 어떻게 인류를 우매함과 미신에서 벗어나게 하고, 건전한 이성과 양호한 생존 환경을 얻으며, 어떻게 자유와 행복을 얻는가 하는 것이다.

인류가 자유와 행복으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길에 대한 그의 연구는 사회, 정치, 윤리와 교육 등 방면에 관한 대량의 저술을 통해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그의 연구가 주로 사회적 현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 러셀의 생애와 그를 대표하는 저술로서 『행복의 정복』에 대한 간략한 정리를 하였다. 이하에서는 러셀의 행복을 감정과학으로 분석해보겠다.

2. 러셀의 행복론에 대한 비판

러셀은 성공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성공의 기쁨을 누리하고자 하면 당연히 여러 가지 애로가 따르게 마련이다. 나중에 가서는 성공의 답을 쌓아올리고야 말지만, 처음에는 도저히 성공할 가망이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게 마련이다.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번번이 실패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다. 성공을 거둔 자의 놀라움은 행복에서 오는 놀라움이요, 실패한 자의 놀라움은 불행에서 오는 놀라움이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겠다. 물론 너무 소심하여 아무 일도 감히 손을 대려고 하지 않아도 탈이지만.⁶⁵⁾

성공에 대한 러셀의 생각은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성공의 답을 쌓아올리고야 말지만”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언

65) 버트런드 러셀, 김병호 역, 『행복의 정복』(집문당, 2015), p. 111.

제나 성공하고”이다. 첫 번째 요소는 행복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두 번째 요소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자기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순서대로 논의하겠지만, 성공과 그로 인한 행복에 대한 러셀의 생각은 본 논문이 지금까지 정리한 감정과학의 논리를 철저하게 위배하고 있다.

1) 러셀의 목적론적 행복론

행복을 목적으로 제시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지금의 ‘나’는 행복하지 않은 불행이다. 지금 우리 자신의 상황이 ‘불행’이라면, 이러한 지경에서 과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지금이 불행이라면, 목적으로 제시된 행복은 엄밀히 말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망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금이 이미 불행이라면, 내일의 행복이 지금으로 나에게 올 때 내일의 행복은 결국 지금의 불행으로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으로 주어진 내일의 행복이 결코 행복이 될 수 없는 근본 이유이다.

행복을 목적으로 설정한 결과 지금이 불행의 심연 속에 빠진다는 것은 이미 「관저」에서 확인했다. 이 작품에서 행복과 성공을 지시하는 것은 요조숙녀(窈窕淑女)이다.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길을 나서는 것인 이 작품의 시작이다.

관 관 지 구 제 하 지 주 요 조 숙 녀 군 자 호 구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관관’하고 물수리가 강 속의 조각배 위에 서로 동반하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는 정말 군자의 좋은 배우자이다.

참 지 행 채 좌 우 류 지 요 조 숙 녀 오 매 구 지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울망줄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건지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꿈에서 깨어나면 잊을 수가 없다.

구 지 부 득 오 매 사 복 유 제 유 제 진 진 반 측
求之不得，寤寐思服。悠哉悠哉，輾轉反側。

아름다운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모두 그리워진다. 이리저리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뒤척이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⁶⁶⁾

“군자호구(君子好逑)”는 행복을 목적으로 삼아서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행복을 목적으로 구하면 지금 당장 불행이기 때

66)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문에, 결국 목적으로 제시된 행복은 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러한 불행이 슬픔으로서 ‘애’(哀)의 감정이다. 이때 시의 화자는 어떻게 자기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방법은 “유재유재(悠哉游哉)”이다. 행복에 대한 자기의 이해가 올바른 것인지 자기 스스로 반성해보는 것이다.

시의 화자는 행복에 대한 자기 스스로 반성함으로써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한다. 그것으로 자기 본래의 행복을 확인한다.

참 차 행 채 좌 우 채 지 요 조 숙 녀 금 슬 우 지
參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

울망줄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골라 뽑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를 마침내 만나서 금슬을 연주하면 벗을 합니다.

참 차 행 채 좌 우 모 지 요 조 숙 녀 종 고 락 지
參差荇采，左友芼之。窈窕淑女，鐘鼓樂之。

울망줄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해치며 고르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종을 울리고 북을 쳐서 그녀를 기쁘게 하다. 67)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와 “요조숙녀(窈窕淑女), 종고락지(鐘鼓樂之).”는 자기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행복에 대한 확인이다. 이 확인과 함께 애(哀)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우리 자신의 행복에 그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목적으로 찾았던 완전한 행복이 이미 우리 자신의 몸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행복해야 최고의 행복 안에서 내일의 행복을 믿고 기다리며 추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감정과학이 「관저」를 통해서 확인한 애이불상(哀而不傷)은 우리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행복에 대한 확인이며, 그러한 한에서 행복의 진실은 절대적으로 목적으로 제시될 수 없다. 그러나 러셀은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행복을 목적으로 제시한 것이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이다. 따라서 행복을 추구하는 러셀의 모든 노력을 결국 허무한 결핍과 공허함으로 끝나게 된다.

2) 러셀의 자기 진실에 대한 오해

이제 두 번째 논점으로 들어가자. 행복을 목적으로 제시한 러셀은 뜻밖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과소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과소평가해야 한다면, 「관저」의 행복은

67)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작품에서 행복을 구하는 화자가 자기 행복의 완전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완전한 행복에 대한 이해이다. 이 이해가 없으면 행복의 진실은 은폐된다.

「관저」의 화자가 자기 행복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 사유의 능동성이며, 오직 이 사유만이 우리 안에 최고의 행복이 본래부터 존재한다는 사실로 인도한다.

구 지 부 득, 오 매 사 복. 유 제 유 제, 전 전 반 측.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아름다운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모두 그리워진다. 이 리저리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뒤척이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⁶⁸⁾

이 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리저리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이다.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 자기 몸에 대한 생각 안에서 자명하게 이해하는 자기 본래의 진실이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행복이다.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 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자기 사유의 완전성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유를 과소평가하면, 과연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우리 본래의 행복을 이해할 수 있을까? 앞에서 인용한 『행복의 정복』을 다시 보자.

자기의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은 주로 이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사람은 언제나 성공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사람은 번번이 실패하고 놀라게 되는 것이다.⁶⁹⁾

과대평가하면 실패하지만, 과소평가하면 성공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이해하는 인간 정신의 진실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생각하는 마음이 자기 정신에 고유한 사유의 능동성 안에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기 스스로 자명하게 이해하는 진리의 필연성이 바로 자기 행복의 완전성이며 동시에 원천이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의 몸에 나아가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인간 정신의 본래능력이다. 이 능력으로 행복의 완전성이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몸으로 생겨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미 행복이다. 이 행복이 분명할 때 공간과 시간을 살아가는 몸-놀이는 엄밀히 말해서 완전한 행복이 보

68)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69) 버트런드 러셀, 김병호 역, 『행복의 정복』 (집문당, 2015), p. 111.

다 더 커지는 즐거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의 행복은 우리가 자신의 완전한 행복이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백번양보해서 과대평가와 과소평가가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인정해보자. 그러나 이런 행복은 사실상 공허한 결핍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복은 완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행복이 원래 내 몸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이다.

결국 러셀의 말을 따라가면 결국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행복을 추구하지만, 행복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비극을 초래하는 것이다. 「관저」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본래부터 자기 본성으로 최고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행복의 진실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분명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면, 이 이해를 통해서 최고의 완전한 행복을 분명하게 느낀다. 이러한 행복감은 삶의 매순간을 보다 더 큰 행복으로 인도한다. 왜냐하면 오늘의 행복이 내일의 행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이해하면, 자신을 자기 스스로 평가함에 그 평가는 절대로 과소(過少)나 과대(過大) 같은 양(量)으로 결정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진실을 이해하면, 그것으로 분명한 것이다. 그 반대로 자기 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분명하지 않은 것이다. 자기 진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면 그것이 곧 최고의 완전한 이해라는 뜻이다. 자기 이해에는 과대나 과소 같은 종합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이러한 자기 이해의 진실을 공자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유야!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마. 알면 안다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⁷⁰⁾

子曰 由 誨女知之乎 知之爲知之 不知爲不知 是知也.⁷¹⁾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식에 있어서 종합의 개념이 절대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 결국 자기 이해에 있어서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는 실질적으로 자기이해의 불완전성을 드러낼 뿐이다.

감정과학에 근거한 자기이해의 자명(自明)만이 우리 몸의 진실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이해가 행복의 방법이다. 공자의 사여학(思與學)으로 내 몸속의 본성의 필연성을 이해한다면 지금 우리 몸의 고유한 본성 속의 영원한 무한

70)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74.

71) 『論語』, 「爲政」 17장.

한 생명은 내 본성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 내 마음은 자기 이해를 통해 몸의 진실을 확인한다. 우리 스스로 인과의 필연성에 근거하여 자기 몸을 생각해 보면 명백하게 이해하는 진실이다. 인과의 필연성 속에서 내 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향한 배움이 감정과학의 즐거움이자 배움의 즐거움이며 인간의 행복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나’ 잘하고 있고, 알고 보면 살만한 세상이니 이또한 기쁘지 아니한가?”⁷²⁾

자 완 학 이 시 습 지 불 역 열 호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乎.⁷³⁾

공자의 ‘학이시습지’(學而時習之)는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나의 몸의 진실과 이 세계 자체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것을 가리킨다. ‘불역열호’(不亦樂乎)는 학습을 통해 자신의 몸의 진실에 따라 사는 것이 즐겁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공부로 자신과 세상을 이해하고 감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기쁨이자 감정의 행복이다. 성동권은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에 대한 분석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감정의 행복을 위해 배우자는 뜻이 있습니다. 학문으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돈과 권력 그리고 명예로 감정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문으로 감정의 행복을 즐기겠다는 것이 “學而時習之(학이시습지), 不亦說乎(불역열호).”입니다. 배움(學)은 반드시 행복 감정(說)으로 성공하며, 행복 감정(說)이 배움(學)을 증명합니다.⁷⁴⁾

논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을 필연성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의 진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돈과 명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 배움과 생각은 우리가 내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유일한 길이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감정과학을 배워서 깨달은 진실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이다. 그래서 내 몸의 진실을 배우고 이해해야만 우리 몸과 감정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내 몸에서 최고의 행복을 알 수 있

72)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25.

73) 『論語』, 「學而」 1장.

74)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19.

다.

3) 행복을 개인적인 환경에 국한

행복의 비결에 대해 러셀은 행복이 개인적인 환경에 국한되며 흥미를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은 넓고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인간의 모든 행복이 개인적인 환경에 국한된다면, 인생이 줄 수 있는 이상의 것을 민생에게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요구가 너무 크면 그 만족은 적은 법이다. ‘토렌트의 회의’나 ‘전체의 역사’나 하는 문제에 참된 흥미를 느낌으로써 인생의 고민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비인간세계에서 돌아올 그는 자기 자신의 고민을 가장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침착성과 휴식을 얻은 셈이며, 또한 당분간이나마 참된 행복을 그동안에 경험한 셈이다.⁷⁵⁾

러셀에 의하면, 세상은 무한하고 개인의 능력은 환경에 제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흥미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잊고, 여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으며, 짧지만 진실한 즐거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감정과학과 이 학문에 근거하여 공자의 「관저」를 이해하면, 러셀의 주장은 행복에 대한 오해로 가득하다. 인간의 능력은 자기 사유의 완전성 안에서 영원무한의 완전성을 누리도록 결정되어 있다.

우선, 인간의 마음은 무한히 다른 몸의 현상에 나아가 그 자체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 무한한 몸은 각각 자신만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하게 변화하며 감정을 생성한다. 이 모든 무한 변화를 그 자체의 필연적 본성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인간은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인간은 공간과 시간의 제한에 갇힌 존재가 아니다. 본래부터 영원무한을 자기 본질로 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영원무한을 이해하는 능력을 본래부터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을 본 논문은 제2장 제2절의 위기지학(爲己之學)에서 ‘수신’(修身)을 주제로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무한한 사유로 이 세상의 영원한 무한한 진리를 배우고 사고함으로써 우리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인간의 고유한 본래 능력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공자의 『논어』에서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75) 버트런드 러셀, 김병호 역, 『행복의 정복』(집문당, 2015), p. 121.

공자가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빈 그릇이 아니다.”⁷⁶⁾

자 환 군 자 불 기
子曰 君子 不器.⁷⁷⁾

군자의 생각과 배움은 어떤 한계(그릇)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군자는 자신의 몸 의 진상을 배우고 감정의 진상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천명(天命)을 신적 완전성 그 자체로 이해한다. 이 이해가 지천명(知天命)이다. 이 인식이 분명하므로 우리는 천지만물의 모든 필연성을 생각하고 배워서 이해할 수 있다. 자기 이해의 능동성으로 이해한다. 내 몸 속에 영원히 무한한 사랑과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내 몸 속에 원래부터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이것으로 우리의 무한한 능력이 증명된다. 이 무한한 능력이 바로 사유의 능동성이다. 이것을 불기(不器)라고 한다. 이렇게 자기 본래의 진실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면, 자기는 영원무한의 행복을 누리는 축복 속에 본래부터 존재한다. 이 행복은 영원의 행복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실로부터 이 행복은 절대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우리 본래의 사실이다. 이 사실에 근거하여 러셀이 주장하는 행복의 한계는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행복 이해는 러셀만의 독창적인 것이 전혀 아니다. 이미 서양 근대의 철학자 루소(Rousseau, 1712~1778)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행복을 이해했다.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이라든가 불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섞여 있다. 인간은 인생에서 순수한 감정이라는 것을 맛보지 못한다. 삶은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로 머무를 수 없다. 신체의 변화와 마음의 감정은 끊임없는 흐름 속에 있다. 선과 악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지만 정도에 차이가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가장 적게 맛보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쾌락을 가장 적게 느끼는 사람이다. 언제나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다. 그 점은 인간 모두에게 공통적이다. 그러므로 이승에서 인간의 행복은 어떤 소극적인 상태일 뿐이다. 따라서 행복은 그가 겪은 고통의 최소량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⁷⁸⁾

루소는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이라든가 불행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러셀도 “세계는 넓고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인간의 모든 행복이 개인적인 환경에 국한”된다고 주장한다. 루소의 “인생의 고민을 잊을 수 있는 사람은 비인간세계

76) 조중빈 역설, 『안심논어』 (국민대학교 출판부, 2016), p. 96.

77) 『論語』, 「爲政」 12장.

78) 성동권,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부크크, 2022), p. 108.

에서 돌아올 그는 자기 자신의 고민을 가장 슬기롭게 처리할 수 있는 침착성과 휴식을 얻은 셈이며, 또한 당분간이나마 참된 행복을 그동안에 경험한 셈이다.”는 것은 루소의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고통을 가장 적게 맛보는 사람이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쾌락을 가장 적게 느끼는 사람이다. 언제나 즐거움보다 고통이 더 많다.”와 별반 다르지 않다. 핵심은 행복의 영원무한을 모르고 있다.

이 사실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루소의 학문 및 철학, 그리고 그에 기초한 교육론은 감정과학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서양 본래의 학문이 아닙니다. 거짓말일 뿐이며, 아퀴나스의 거짓말과 맞닿아 있습니다. 학문의 핵심인 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기초로서 인간 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⁷⁹⁾

성동권은 “학문의 핵심인 신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 기초로서 인간 이성에 대한 인식이 매우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습니다.”라고 비판했다. 결국 감정과학을 연마함으로써 자기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자기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스피노자도 다음과 같이 이 진리를 확인했다.

5부 정리 42

지복은 덕의 보수가 아니라 덕 자체이다. 우리들은 쾌락을 억제하기 때문에 지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⁸⁰⁾

핵심은 “지복을 누리기 때문에 쾌락을 억제할 수 있다.”이다. 지복은 최고의 행복이며, 동시에 완전한 행복이다. 최고의 행복이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스피노자는 이 행복을 본래부터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끝으로 러셀도 본 논문의 주장과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행복한 인간은 자기가 사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 그의 인격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분열되지 않으며, 세계에 대하여도 대립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우주의 시민’이라고 생각하고, 우주의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마음껏 향락 하며, 자기를 뒤에 오는 생명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으로써 죽음에 대하여도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다. 이처럼 생명의 큰 물줄기와 본능적으로 깊이 결합될 경우에,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⁸¹⁾

79) 성동권,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부크크, 2022), p. 117.

80) 스피노자, 강영계 역, 『에티카』 「5부 정리 42」 (서광사, 2007), p. 366.

81) 버트런드 러셀, 김병호 역, 『행복의 정복』 (집문당, 2015), p. 196.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우리 몸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진실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이 행복이 우리에게 목적으로 제시되는 순간, 그것은 실질적으로 「관저」의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따라서 애이불상(哀而不傷)이 아니라 애이상(哀而傷)이다. 본래의 행복을 알지 못하면, 본래의 행복 속에서 행복을 구하는 비극에 떨어진다.

자기 몸에서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기 몸의 본질로 이해하면, 삶과 죽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 러셀이 말한 행복이 확인된다. 더 나아가 이렇게 살아가는 가는 행복의 사람은 절대적으로 전쟁하지 않는다. 오직 생명과 사랑만을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는 다 좋은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러셀이 말한 “행복한 인간은 자기가 사회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워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성동권은 감정과학으로 배우는 다 좋은 세상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몸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자기 몸 그 자체의 진실을 알아서 그 진실대로 살면, ‘필연적으로’ 생명과 사랑을 모시며 생명과 사랑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진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 증명합니다.⁸²⁾

다 좋은 세상은 기분 좋은 세상이다. 이 세상은 낙이불음의 세상이며 애이불상의 세상이다. 감정에 대한 참다운 이해로 기분 좋은 세상이다. 그런데 기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기 몸의 진실 안에서 감정의 진실을 이해하면, 감정의 진실 안에서 감정을 참답게 이해해야 한다. 이 이해로 감정은 자기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제2절 보들레르의 ‘악의 꽃’

1. 보들레르의 생애와 『악의 꽃』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Charles Pierre Baudelaire, 1821~1867)는 프랑스 19세기 현대파 시인으로 상징과 시의 선구자이다. 유럽과 미국 시단(詩壇)에서 중요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의 작품 『악의 꽃』은 19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시집 중의 하나

82) 성동권,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부크크, 2022), p. 11.

나이다. 본 논문은 현대 문학을 대표하는 시인 보들레르를 대표하는 시인 ‘악의 꽃’을 통해서 행복의 진실을 탐구하고자 한다.

이 시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이전에 보들레르의 삶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들레르의 학창 시절을 보면, 그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여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21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모두 잃게 된다. 이후 수많은 방황을 겪은 보들레르는 마침내 1857년 『악의 꽃』이라는 시를 출판한다. 보들레르를 전 세계에 알리게 된 작품이다.

이후 보들레르의 삶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1866년부터 신체 일부에서 마비를 겪게 되었고, 실어증(失語症)에 빠지게 된다. 결국 그는 1867년 46세의 나이에 사망한다. 보들레르의 사망에 관하여 많은 원인분석이 있지만, 그의 학창시절 및 그 이후의 삶을 근거로 보면, 아마도 무분별한 삶을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삶의 한 가운데 『악의 꽃』이 있다.

100여수의 시로 구성된 『악의 꽃』은 시인이 6개 구성부분으로 배치하여 시인의 정신적 탐구를 질서 있게 전개하였다. 보들레르는 인간의 가장 비열한 정욕 속에 깊이 들어가 대담하게 『악의 꽃』 몇 송이를 따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분명히 지적했다. ‘우울과 이상’, ‘파리 풍경’, ‘술’, ‘악의 꽃’, ‘반향’,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시집 전체가 ‘여행’이라는 제목의 긴 시로 매듭을 지어 시인의 일생의 탐구를 요약했다.

본 논문은 주로 『악의 꽃』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여행’을 『시경』의 「관저」와 비교하여 감정과학이 올바른 학문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시인은 자기 마취, 방랑(放浪), 하느님 저주, 죽음 추구 등을 통해 이 세상과 맞서려 한다. 결국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것은 해방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극이다.

이 시의 결말은 시인의 일생을 예시처럼 묘사했다. 그는 이 사회의 어둠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과 대항했지만 곳곳에서 배척과 타격을 받았다. 무엇을 추구하던 결국 실패로 끝났다. 끊임없이 좌절을 겪은 그는 이 세상에서 그의 작은 구석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이 현실의 세계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 그가 살면서 겪은 불행은 『악의 꽃』으로 합쳐져 그의 독특한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 세상에 대한 보들레르의 비관적인 견해는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하에서는 감정과학으로 보들레르의 ‘여행’을 분석하겠다.

2. 보들레르의 행복론에 대한 비판

본 논문은 『시경』을 대표하는 시 「관저」에 대한 공자의 평가를 감정과학에 근거하여 탐구했다. 그 결과 인간 행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혔다. 따라서 서양 근현대를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보들레르의 시를 근거로 현대 행복론을 탐구해 보자.

논자는 『악의 꽃』 여행 중 세 단락을 각각 아래에 전시하고 분석한다.

1) 첫 번째 단락

그러나 진정한 여행자들은 오직 떠나기 위해
떠나는 사람들. 마음도 가볍게, 풍선처럼,
주어진 숙명을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까닭도 모르는 채 늘 “가자!” 하고 외친다.⁸³⁾

이 대목은 주로 여행자에 대한 시인의 견해를 묘사했다. 그는 여행자가 여행을 위해 여행하고, 결과를 고려하지도 않고, 원인을 생각하지도 않고, 단지 떠날 생각만 한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숙명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어떤 운명이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까닭도 모르는 채 늘 “가자!” 하고 외친다. 이는 운명의 인과적 필연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행만 떠나기를 욕망하는 것이다.

보들레르에게 “여행”은 단순히 집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바깥세계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물을 경험하는 것이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자신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고, 행복을 추구한다. 시인은 계부의 억압을 받아왔고 이 가족에 대한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여행은 그에게 가족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세계로 가는 것이었다. 행복을 향한 시인의 동경을 확인할 수 있다.

논자는 이 부분이 『행복의 정복』과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행복의 정복』에 의하면 러셀의 행복은 ‘흥미’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은 실상 영원무한의 행복이 아니다. 여기에서 보면, 러셀의 행복은 사실은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다. 본래부터 누리도록 결정된 최고의 완전한 행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행복은 엄격히 말해서 불행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보들레르의 행복은 불행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출발점은 「관저」와 유사하다.

83) 보들레르, 윤영애 역, 『악의 꽃』 (문학과지성사, 2003), p. 325.

관 관 지 구 제 하 지 주 요 조 숙 녀 군 자 호 구
關關雎鳩，在河之洲。窈窕淑女，君子好逑。

‘관관’하고 물수리가 강 속의 조각배 위에 서로 동반하다. 아름답고 현숙한 여자는 정말 군자의 좋은 배우자이다.

참 치 행 채 좌 우 류 지 요 조 숙 녀 오 배 구 지
參差荇菜，左右流之。窈窕淑女，寤寐求之。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건지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꿈에서 깨어나면 잊을 수가 없다. 84)

군자에게 행복은 ‘요조숙녀’이다. 군자는 자기 행복인 ‘요조숙녀’를 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이 “참치행채(參差荇菜), 좌우류지(左右流之)”이다.

욕망의 진실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들레르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관저」 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들레르와 「관저」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서 매우 훌륭하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며, 욕망의 성스러운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은 여행에 대한 보들레르와 「관저」의 생각을 비교분석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현대 행복론을 이해할 수 있다. 동시에 본 논문이 연구하는 행복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두 번째 단락

이것이 여행에서 얻어낸 씩씩한 깨우침!
단조롭고 작은 이 세계는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그리고 언제나 우리 모습을 비춰보인다.
권태의 사막 속의 공포의 오아시스를!85)

이 시는 보들레르의 『악의 꽃』이 이야기하는 여행 이후의 깨달음이다. “여행에서 얻어낸 씩씩한 깨우침!”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권태의 사막 속의 공포의 오아시스”이다.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보들레르에게 질문을 해야 한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여행이 무슨 연유로 “권태의 사막 속의 공포의 오아시스”가 되었는지 물어야 한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관저」에서 찾을 수 있다.

84)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85) 보들레르, 윤영애 역, 『악의 꽃』 (문학과지성사, 2003), p. 330.

구 지 부 득, 오 매 사 복, 유 제 유 제, 전 전 반 측.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

아름다운 소원은 이루기 어렵다. 잠에서 깨어나면 꿈속에서 모두 그리워진다. 이 리저리 생각하며 끊임없이 생각하여 뒤척이다가 잠을 이룰 수가 없다.⁸⁶⁾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요조숙녀(행복)가 밖에 있다는 생각으로 여행(‘참치행채’參差荇菜)을 떠나면, 뜻밖에 행복을 구하지 못하는 절망에 빠지고 만다. 이 절망이 “권태의 사막 속 공포의 오아시스”이다. 여행이 ‘권태의 사막’이 되었다는 것은 여행을 시작할 때의 희망을 상실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공포의 오아시스’이다. 왜냐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진실을 분명하지만, 뜻밖에 욕망은 결핍에 빠지기 때문이다. 욕망을 포기할 수 없지만, 동시에 그 욕망은 만족되지 않는다.

이 절망을 서양 근대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 1813~1855)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병은 ‘죽음에 이를 뿐’이지 결코 죽음은 아니다. 이 병이 ‘공포의 오아시스’이다.

한 종합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그 분열을 ‘절망’이라 한다. 그러나 종합은 분열이 아니라 다만 그 가능성에 불과하다. 바꿔 말하면 종합 안에 분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만약 종합이 분열이라면, 절망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리라. 그 경우에는 절망이란 다만 인간의 본성 안에 존재하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것은 절망이 될 수 없으리라. 그것은 인간이 종종 꺾어야 하고 시달려야 하는 어떤 것으로, 이를테면 인간이 병에 걸린다거나 죽음이 만인의 운명인 것과 같은 것이다.⁸⁷⁾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 ‘절망’은 “한 종합인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계’ 안에서 분열”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발생하는 분열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좌절이다.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존재는 분명하지만, 그와 동시에 행복 앞에서 결핍에 시달리는 욕망의 존재가 분명하다. 이것이 자기 안에서 자기의 분열이다. 그리고 이 분열은 ‘가능성’이다. 확실성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분열은 욕망의 진실이 아니라 욕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한에서 이 절망은 필연성이 아니라 가능성이다.

보들레르의 “권태의 사막 속의 공포의 오아시스”가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의 가능성’이다. 「관저」의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이 절망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분

86)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87)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부크크, 2022), p. 200.

석한다.

이런 논법은 전형적인 신기루 논법이 아닙니까? 저 멀리 눈앞에 오아시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서 도착했는데, 다시 오아시스는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치 무지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멀어지는 것입니다. 헤겔이 파 놓은 이 함정을 키에르케고르가 간파했습니다. 오아시스가 과연 있는 한 거야? 거기에 도달할 수는 있는 것일까? 사실상 그 오아시스는 신기루라는 것입니다.⁸⁸⁾

결국, 행복을 밖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그로부터 불행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불행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결론은 필연적이다. 행복을 구하는 욕망의 진실은 영원불변이지만, 욕망 스스로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을 자기 밖에서 구하면 결국 절망의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기원전 약 500년 전 춘추시대 공자의 『시경』은 「관저」를 통해서 이 진실을 노래했으며, 공자는 낙이불음과 애이불상으로 이 진실을 요약했다. 그리고 이 행복의 진실은 20세기 서양의 시를 대표하는 보들레르도 확인한다. 따라서 행복은 엄격히 말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3) 세 번째 단락

네 독을 우리에게 쏟아 기운을 복돋워주렴!
이토록 그 불꽃이 우리 머리 불태우니.
지옥이건 천국이건 아무려면 어떠랴? 심연 깊숙이
미지의 바닥에 잠기리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⁸⁹⁾

이 결론에서 보들레르는 낙이불음(樂而不淫)이 아니라 불락이음(不樂而淫)이며, 애이불상(哀而不傷)이 아니라 불애이상(不哀而傷)이다.

‘새로운 것’을 찾자고 했지만, “지옥이건 천국이건 아무려면 어떠랴?”라고 말한다.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며 결핍에 시달린 결과 옳고 그름의 시비판단을 상실한 비극이다. ‘불락이음(不樂而淫)’이다. 그리고 이 비극은 슬픔이 아니다. 이 비극의 본성은 시비판단을 상실한 것이므로 엄격히 말해서 ‘슬픔’이라는 감정이 아니다. 그러한 한

88)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부크크, 2022), p. 210.

89) 보들레르, 윤영애 역, 『악의 꽃』 (문학과지성사, 2003) p. 332.

에서 자기 행복을 자기 스스로 해치는 것이다. ‘불애이상(不哀而傷)’이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반드시 「관저」의 결론과 비교해야 한다.

참치행채 좌우채지 요조숙녀 금슬우지.
參差荇菜，左右采之。窈窕淑女，琴瑟友之。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골라 뽑습니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를 마침내 만나
서 금슬을 연주하면 벗을 한다.

참치행채 좌우모지 요조숙녀 종고락지.
參差荇菜，左友芼之。窈窕淑女，鐘鼓樂之。

올망졸망 마름풀을 이리저리 해치며 고른다. 아름답고 정숙한 여자는 종을 울리고
북을 쳐서 그녀를 기쁘게 한다.⁹⁰⁾

「관저」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행복을 찾아서 떠난 여행의 결과는 “구지부득(求之不得)”이다. 그러나 시인은 결코 자포자기에 빠지지 않는다. “유재유재(悠哉游哉), 전전반측(輾轉反側).”이 그 증거이다. 자기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한 결과, 드디어 시인은 진짜 여행을 떠난다. 이 여행은 자기 밖으로 떠나는 여행이 아니라 자기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기 행복의 진실을 이해하는 여행이다. 이 여행이 여기에 등장하는 “참치행채(參差荇菜)”이다. ‘2) 두 번째 단락’에 등장하는 “참치행채(參差荇菜)”는 밖으로 나가는 여행이라면 여기의 “참치행채(參差荇菜)”는 자기 이해이다.

행복에 대한 자기이해의 결과는 무엇일까? 바로 여기에서 감정과학의 행복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요조숙녀(窈窕淑女), 금슬우지(琴瑟友之)”가 그것이다. 마침내 시인은 자기가 그토록 찾던 행복(요조숙녀)을 확인한다. 이 행복은 보들레르의 “지옥이건 천국이건 아무려면 어떠랴? 심연 깊숙이 미지의 바닥에 잠기리라,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라는 비극이 없다. “요조숙녀(窈窕淑女), 종고락지(鐘鼓樂之)”이다. 이 즐거움을 두고 공자는 불음(不淫)이라고 했다. 즉, 밖에서 구해서 자기의 소유로 확인해야 느끼는 즐거움(樂)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불행과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행복을 밖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구하는 순간, 음(淫)과 상(傷)에 빠지는 비극을 피할 수 없다. 오직 자기 몸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자기 행복을 본래의 영원 무한으로 확인하는 것이다. 이 행복을 진실을 키에로케고르는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절망이 완전히 근절된 경우에 있어서의 자기 상태를 나타내는 정식(定式)은 이렇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계하면서 자기 자신이라고 욕구할 때, 자기는 이 자기를

90) 『詩經』, 「周南」, ‘關雎’. 이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이다.

정립한 힘의 내부에 투명하게 자기자신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⁹¹⁾

절망을 극복하며 절망을 치유하는 방법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계하면서 자기 자신이려고 욕구”하는 것이다.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 본래의 행복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다.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 관계”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안에서 자기 존재의 사실을 명석판명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감정과학은 ‘자기이해’ 또는 ‘reflexive understanding’이라 합니다.⁹²⁾

‘자기이해’는 근본적으로 자기 사유의 능동성 안에서 자기 몸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절망을 해소하는 것이다. 감정과학의 자기이해는 자기 몸 안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영원한 행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이 행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

이 행복을 성동권은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이성의 필연성을 자기 본성으로 삼고 있는 정신이 몸-생김에 내재한 진리의 필연성을 배우는 그 순간, 그 즉시 우리는 신적 완전성 안에서 최상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행복을 느끼는 순간이 신이 자신을 생각하고 배우는 때인 것입니다. 몸에 나아가 몸-생김의 진실을 배우는 순간이 신의 존재가 신의 자기 정신에 의해서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진리는 감정으로 증명됩니다. 정신이 이성의 필연성 안에서 자기 몸 안에 존재하는 진리의 필연성을 이해하는 즉시 감정은 지복(至福)을 느끼며 행복 감정으로 충만합니다.⁹³⁾

우리의 욕망은 행복을 추구한다. 그 어떤 욕망도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문제는 욕망이 추구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가 분명하면, 자기 본래의 행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면 자기 본래의 행복 대신 비극에 떨어지고 만다. 욕망의 행복 이해가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이며, 감정과학의 행복론인 현대의 우리에게 절실한 이유이다.

이 주제는 비단 고대 중국의 공자와 서양 현대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양 고대 철학을 마무리한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 354 ~ 430)도 욕망의 진실을 이해하고자 한다. 그는 『고백록』에서 다음과 같이 욕망의 진실을 밝힌다.

91)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부크크, 2022), p. 226.

92) 성동권,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부크크, 2022), p. 229.

93) 성동권, 『서양 근대 17세기 감정과학의 확립』 (부크크, 2022), p. 206.

“사람의 종락들아, 어느 때까지 고집한 마음을 지니려뇨? 어찌하여 헛됨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찾느뇨?”(시편 4,3)라고 말씀하실 때, 눈과 목청을 통하여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나이다. 사실 내가 헛됨을 좋아했고, 거짓말을 찾아 헤매인 때문이었습니다. 예언은 다시 외치나이다. “어느 때까지 고집한 마음을 지니려뇨? 어찌하여 헛됨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찾느뇨? 너희는 알라, 주께서 당신 성자를 들어 높이셨음을”(시편 4,3-4). “어느 때까지”라 외칩니다. “알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나는 입때까지 모르고 헛됨을 사랑했고, 거짓을 찾아다녔으니, 이러기 나는 듣고 무서워 떨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할 때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인 줄 알았던 꼭두들이 헛됨과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더이까. 쓰라린 추억을 하면서 나는 버럭버럭 과격하 소리로 지껄었던 것입니다.⁹⁴⁾

여기에서 핵심은 “‘알라’고 외칩니다.”이다.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행동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대목에서 보들레르의 『악의 꽃』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은 잘못 알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못 알아서 잘못 행동을 했으면, 바르게 알면 된다. 그리고 이때 반드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은 자기 몸의 진실이다. 이 진실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핵심은 이 모든 가르침이 ‘남’이 아니라 지금의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학문은 결국 자기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 나아가 자기 몸의 진실을 알아서 그 진실대로 사는 것이 학문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진실을 아우구스티누스는 ‘돌이켜 생각할 때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사실은 ‘나’만을 향하고 ‘나’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깨달음이 참된 학문의 효과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는 쪽 빼놓고 다른 자기의 생김이나 행동에 대해 손가락질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학문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현상이나 행동 같은 그저 몸의 겉보기에 눈이 밝아서 정작 자기 몸에 어둡기 때문입니다. 현대 학문의 치명적 오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⁹⁵⁾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자기 몸으로 돌아가서 자기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이해가 감정과학의 지천명(知天命)이다. 그리고 이 진실은 공자의 감정과학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양 고대의 예수가 확인한 우리 몸-생김의 진실이기도 하다. 예수의 기도는 몸-생김의 진실을 다음과 같이 밝혀준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⁹⁶⁾

94) 성동권,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 406.

95) 성동권,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409.

96) 『성경』, 「마태복음」, 6:9.

여기에서 핵심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부르기 위해서는 나는 반드시 하늘의 아들로 존재해야 한다. ‘하늘의 아들’을 공자는 천자(天子)라고 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이다. 절대적으로 예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 천자(天子)는 어떤 특정한 내지는 어떤 특정의 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몸으로 생겨나 놀이하는 우리 모두의 진실이다.

이 사실을 성동권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몸-생김의 진리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안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냅니다. 생김의 기원으로 존재하는 신은 우리 몸-생김의 본성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가 생겨나 존재합니다. 이렇게 몸-생김의 진실을 확인하면 감정과학의 공리에 근거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몸-놀이에도 그대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는 하나님 아버지가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몸-놀이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필연성을 확인합니다.⁹⁷⁾

천자로 생겨났으므로 천자로 놀이한다는 것이 감정과학으로 배우는 우리 자신의 진실이다. 이 진실이 앞에서 살펴본 키에르케고르의 절망을 해소하는 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동시에 행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방법은 나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있다. 이 사실을 서양 철학의 연원으로 존재하는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라톤은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전한다.

소크라테스: 오, 크리톤, 별로 당부할 것도 없네. 단지 내가 언제나 자네들에게 말한 것처럼 자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 그렇게 하면 다른 당부는 하지 않더라도 나나 우리 집 식구들에게나 또는 자네들 자신에게 봉사하는 것이 될 걸세. 그렇지만 자네들이 자기 자신에 관해 생각지 않고 지금 말한 나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현재 아무리 많은 약속을 하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언약을 하더라도 아무 쓸모가 없을 걸세.⁹⁸⁾

여기에서 핵심은 “자네들은 자기 자신을 돌보게.”이다. 이것이 공자의 감정과학에서 기초로 존재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이다. 성동권은 이 논리를 다음과 같이 정

97) 성동권,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2), p. 248.

98) 플라톤, 최현 역, 『파이돈』 (범우사, 2008), p. 135.

리한다.

마음 스스로 사유하는 자신의 정신력으로 몸 그 자체의 본성을 이해하거나, 또는 마음이 감정에 나아가 감정의 본성을 확인함으로써 몸의 생김과 놀이를 그 자체의 본성으로부터 이해하는 것 이외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몸-생김을 이해하고 영원한 사랑으로 몸-놀이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 이렇게 물자체의 본성을 인식하면 그것으로 놀이의 윤리를 세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⁹⁹⁾

그러므로 본 논문은 보들레르의 시 『악의 꽃』을 통해서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공자의 「관자」를 인간의 행복에 대한 올바른 생각으로 증명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에서 사유의 자명함으로 몸-생김의 진실을 이해하면,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하는 행복은 지금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금 이 공간과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몸 안에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진실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공간과 시간을 최고의 행복으로 누릴 수 있다.

99) 성동권, 『서양 고대 그리스의 감정과학』 (부크크, 2021), pp. 101-102.

제5장 결론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며, 이것은 영원의 필연성으로 ‘행복’을 추구한다. 욕망에 고유한 자명한 사실에 근거하여 논자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 논문을 기획했다.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논어』의 「관저」에서 탐구했다. 왜냐하면 공자의 ‘낙이불음’(樂而不淫)과 ‘애이불상’(哀而不傷)은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를 최고의 행복으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본 논문은 문화교차학의 ‘감정과학’(Science of Feelings)에 근거하여 몸의 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근거하여 감정의 본질을 확인했다.

본 논문의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감정과학의 정의와 논리 그리고 그 결과 깨닫는 행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혔다. 몸은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는 단 하나의 실체인 ‘천’(天)에 의해서 생겨났다. 이것이 몸-생김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다. 이 사실로부터 감정의 진실은 이성의 필연성으로 연역된다. 즉, 몸-생김의 진실을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으로 인식하는 한에서 ‘생김의 몸으로 놀이한다.’는 감정과학의 공리(公理)에 의해서 몸-놀이로서 감정의 본성 또한 영원의 필연성으로 생명과 사랑의 영원무한 안에 존재한다.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몸으로 생겨나 놀이하며 감정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진실이다. 우리는 본래부터 영원의 완전성으로 최고의 행복으로 생겨났고 이 사실 그대로 최고의 행복으로 놀이한다. 이 진실 안에서 우리는 무한한 방식으로 무한한 감정을 느낀다. 그렇다면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이 자기 본성에 충실하기 위한 방법은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인식’이다. 이 인식을 위한 학문이 감정과학이다.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을 밖에서 구하면, 자기 본래의 행복을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것이다. 행복을 이해하면 자기는 본래부터 행복이다.

위와 같은 감정과학의 행복을 본 논문의 연구주제인 「관저」에 대한 공자의 시론(詩論)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낙이불음(樂而不淫)과 애이불상(哀而不傷)이 그것이다. 낙(樂)은 행복을 추구하는 즐거움이며 동시에 행복을 누리는 축복이다. 이것이 ‘음’(淫)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자신이 본래부터 행복을 누리고 있는 성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이외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불행을 시작으로 자기에게 없는 행복을 밖에서 구하고 그 결과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사실상 음(淫)이기 때문이다.

감정과학에 의하면, 우리 자신은 본래부터 최고의 완전성으로 행복을 누리는 거룩한 존재이다. 이렇게 성스러운 자기를 결핍의 불완전으로 만드는 것이 ‘음’(淫)이다.

이에 이어서 결핍의 절망 속에 있는 자기 밖에서 행복을 채워야 비로소 자신을 행복한 존재로 변신할 수 있다는 자기 인식의 오류가 ‘음’(淫)이다. 이러한 음(淫)의 절망과 결핍이 없는 행복이 있다면, 이 행복은 본래부터 우리 안에 최고의 완전성으로 영원하게 존재해야 한다.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낙이불음(樂而不淫)이다. 그와 동시에 이 사실을 알 때 행복을 추구하는 노력은 애이불상(哀而不傷)이다.

이와 같이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는 행복의 진실을 밝히고, 그에 근거하여 『시경』의 「관저」에 대한 공자의 시론(詩論)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자의 학문을 감정과학으로 증명하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2장의 핵심 주제이다. 그 다음으로 본 논문은 공자의 감정과학으로 「관저」를 다시 읽고 번역했다. 이에 입각하여 「관저」를 감정과학으로 분석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본 논문이 탐구하는 공자의 시론(詩論)을 감정과학으로 이해했다. 마침내 유교문화의 감정과학이 이해하는 행복의 실질을 밝힐 수 있었다.

4장은 2장과 3장에 근거하여 현대 학문이 이해하는 행복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양 근현대 철학을 대표하는 러셀의 행복론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했다. 다른 한편, 본 논문의 주제가 『시경』의 「관저」라는 사실에 착안하여 서양을 대표하는 시인 가운데 한 사람인 보들레르의 시 『악의 꽃』을 구체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함으로써 행복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혔다. 그러나 서양 근현대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서 철학자 러셀과 시인 보들레르가 들려주는 행복론을 살펴보면, 그것은 낙이불음(樂而不淫)이 아니라 음(淫)이며 애이불상(哀而不傷)이 아니라 상(傷)이다.

러셀과 보들레르의 행복은 행복에 대한 참다운 인식을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공자의 감정과학에 의하면 자신의 몸이 천명(天命)의 필연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자기 본래의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을 자기의 진실로 확인한다. 우리는 본래부터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 속에서 이미 완전하게 최고의 행복으로 존재한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러셀과 보들레르가 들려주는 행복은 밖에서 구하는 결핍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절대로 행복에 관하여 결핍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공자에게 ‘요조숙녀’(窈窕淑女)는 최고의 아름다움이며 행복이다. ‘군자호구’(君子好逑)는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의 진실이다. 이처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에 고유한 본성의 필연성이며 동시에 진리이다. 이 욕망이 자기 본성을 따라서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행복을 위한 가장 올바른 방법은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 자신이 본래부터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존재하는 최고의 행복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은 자기 본래의 행복을 최고의 완전성으로 누리게 된다. 욕망의 자기이해가 행복의 방법인 것이다.

「관저」에 대한 감정과학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면 절대적으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오직 욕망 스스로 자기 사유의 질서를 따라서 생각을 할 때 자기 본래의 행복을 자명하게 진리의 필연성으로 깨달을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신의 존재의 필연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의 생명과 사랑이 엄마아빠의 생명과 사랑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다. 행복은 본래부터 내 안에 있는 본성으로 존재하는 영원무한한 사랑과 생명이다.

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슬픔을 느끼든 기쁨을 느끼든 우리는 느낀 감정을 생각하고 배움으로서 감정의 진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몸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몸이 진실을 이해하고 내 몸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행복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애이불상(哀而不傷)이다. 락이불음(樂而不淫)은 우리가 행복의 진실을 알게 되면 절대로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내 감정이 최고의 완전성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느끼는 감정(기쁨)은 이 감정을 통해 마음이 자기 이해를 통해 행복의 최고의 완전성을 깨닫게 된다.

그러므로 행복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행복을 추구하기 전에 배움과 생각을 통해 본래부터 행복을 가지고 있는 내 몸 그 자체에 대한 진실하고 명명백백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자신의 몸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형성할 때, 이 이해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무한한 감정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고전

『금경(禽經)』
『논어(論語)』
『맹자(孟子)』
『모전(毛傳)』
『시경(詩經)』
『성학십도(聖學十圖)』
『성경』
『이정집(二程集)』

2. 저서

조중빈. 2016. 『안심논어』. 서울: 국민대학교 출판부.
성동권. 2021. 『감정과학의 논리 생각하며 배우기 1. 서양 고대 그리스 감정과학의 태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a. 『유교문화의 정초 공자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b. 『서양 근대 18세기 감정과학의 위기』.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c. 『서양 근대 19세기 감정과학의 성공』.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d. 『서양 근대 17세기 감정과학의 확립』.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e. 『서양 고대 로마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성동권. 2022f. 『서양 고대 그리스의 감정과학』. 서울: 부크크.

3. 번역서

버트런드 러셀 저·김병호 역. 2015. 『행복의 정복』. 서울: 집문당.
보들레르 저·윤영애 역. 2003. 『악의 꽃』. 서울: 문학과지성사.
플라톤 저·최현 역. 2008. 『파이돈』. 범우사.
스피노자 저·강영계 역. 2007. 『스피노자 에티카』. 서울: 서광사.

4.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진호(陳浩). 2022. “주희와 ‘위기지학’의 서원 전통(朱熹與“爲己之學”的書院傳統).” 『역사 문화(歷史文化)』. 25.
- 유부화동(劉付華東). 2022. “하학상달: 주희 도덕-형학의 능력에 대한 지식 탐구(下學上達: 朱熹道德-形上學的能力之知探究).” 『중국공산당 Ning보시위원회 당교학보(中共寧波市委黨校學報)』. 제2기. 26.
- 주근근(周勤勤). 2022. ““지행합일”과 “하학상달”- 왕양명과 방이지 비교 연구(“知行合一”與“下學上達”-王陽明與方以智比較研究).” 『왕학 연구(王學研究)』. 제9기. 148.
- 전유풍(田瑜風). 2021. “<관저>에서 가르친 애정관의 인도를 약술한다(淺述《關雎》教學中的愛情觀引導).” 『“따영” 국어교육과 연구(|頤英|語文教學與研究)』. 152.
- 성동권. 2021. “기하학적 질서에 따라 증명된 思學의 四端之情과 不思不學의 七者之情”. 『한국문화』, 455~456. 서울대학교 규장학.
- 동흥걸(董興杰). 2020. “위기지학의 불이법문(爲己之學的不二法門).” 『하북대학 학보(河北大學學報)』 제1기. 53.
- 손위(孫偉). 2020. ““지천명”에서 “제천명”까지---순자 천명관 사상의 새로운 탐구(從“知天命”到“制天命”——荀子天命觀思想新探).” 『철학 동태(哲學動態)』. 제10기. 53.
- 도가국(涂可國). 2018. “유학: 위기지학과 위인지학의 변증법적 통일(儒學: 爲己之學與爲人之學的辯證統一).” 『동악논총(東岳論叢)』. 제8기. 5.
- 풍신(馮晨). 2018. “지천명: 공자의 자아심시(知天命: 孔子的自我審視).” 『도덕과 문명(道德與文明)』. 제4기. 62.
- 강우(江雨). 2017년 9월. “논어 하학상달의 내실을 분석(淺析《論語》“下學上達”內涵).” 『어저우대학학보(鄂州大學學報)』 제24권, 제5기. 19.
- 조옥민(趙玉敏). 2012. “락이불음, 애이불상과 공자 ‘중화(中和)’ 미학정신(“樂而不淫, 哀而不傷”與孔子“中和”美學精神).” 『THE NORTHERN FORUM(北方論叢)』. 20.
- 유역안(柳亦安). 2012. “<관저>‘락이불음, 애이불상’(《關雎》: “樂而不淫, 哀而不傷”).” 『구이양 문사(貴陽文史)』. 제5기. 62.

5. 학위 논문

- 유영관. 2019. “‘自明코칭’의 원리와 『中庸』의 ‘性, 道, 教’에 대한 나의 이해.” 국민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Abstract

A Study on the Human Happiness of 「GuanJu」 in 『ShiJing』 based on Confucius' Science of Feelings

by Liu, Zhi Chen

Department of Cross-Cultural Studies
Graduate School,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The pursuit of happiness is the common desire of all human beings, but many people do not have the most appropriate answer to how to pursue happiness, how to form a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happiness of reality, how to live a happy life and so on. This paper with the research method of Confucius “thought and learning(思与學)” and “emotional science research method”, Guan Ju in reading again in the book of songs of Confucius “joy but not prostitution, sorrow but not hurt(樂而不淫，哀而不傷)” analysis, understands the truth of happiness, finally through the evaluation of happiness theory criticism of Confucius “joy but not prostitution, sorrow but not hurt(樂而不淫，哀而不傷)” realizes the happiness of real consolidation again.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the idea of “joy but not prostitution, sorrow but not hurt(樂而不淫，哀而不傷)”, this paper reorganized the thoughts of Confucius through the science of feelings, and finds the answer t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body and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feelings. Next, according to this theorem, this paper focuses on Confucius ‘evaluation of Guan Ju to explore Confucius’s theory of happiness. Finally, we explore what human happiness is.

According to the reasonable understanding of the science of feelings, we

have proved that Confucius' learning is the thought of the science of feelings. Therefore, by understanding Guan Ju of Confucius, you can understand the truth of happiness. The fact that we are born in the beginning of happiness with happiness is the eternal truth, and then this paper through this truth, let us use the body of the truth of the feelings of the body to learn "joy but not prostitution, sorrow but not hurt(樂而不淫，哀而不傷)".

Before the reanalysis of Guan Ju in the Book of Songs, we also made a very detailed analysis of the science of feelings, and at the same time, starting from the logic of emotional science, it is proved that Confucius' learning theory is the science of feelings. It confirms the fact that Confucius' learning is learning from our own body, and finally confirms a fact, that is, the inevitability of learning from the inner nature of the body. And it is at the heart of emotional science. Based on the logic of Confucius' emotional science, we translated and annotated and detailed analysis of Guan Ju in the Book of Songs, and proved this work with emotional science. On this basis, it carefully clarifies the meaning of "joy but not prostitution, sorrow but not hurt(樂而不淫，哀而不傷)".

Then this paper discusses the happiness understood by modern scholarship. It also criticizes and analyzes Russell's theory of happiness representing western modern and modern philosophy. And the western representative poet Baudelaire's poem "The Flower of Evil", thus finds out the problems existing in their theory of happiness and clarifies what the truth of happiness is. According to Confucius' science of feelings, clearly understands the fact that one's body exists in the inevitability of destiny. We exist completely as the highest happiness in the eternal and infinite life and love. Once aware of this fact, it becomes clear that the happiness of Russell and Baudelaire is nothing more than a moment of happiness outside. Because we never lack happiness.

Finally, the study findings are presented as follows. The analysis of the science of feelings on the "official residence" is the fact that if we pursue happiness outside, we can never achieve happiness. Whether we feel sad or happy, we can think about the emotions we feel, and through learning, we can not only understand the truth of the emotion, but also understand the truth of the feeling of the body. Your body can understand the truth, and confirm the

existing happiness existing in your body. This is “joy but not prostitution(樂而不淫)”. When we know the truth of happiness, we are absolutely happy. So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happiness is that when we form a correct understanding of our own body, in which the infinite emotions we feel are understood as true happiness.

Key words:

GuanJu, Body, Feelings, Analects of Confucius, Happiness.